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3)<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 I. 북미

### [미국]

#### 1. (2020년 7월) USDA, 2020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 전망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쇠고기 시장 불확실성 커져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

여기에서는 미국 Choices에서 발표한 “The U.S.-Japan Trade Agreement: Will It Lead to Greener Pastures for U.S. beef?” (2020.7.)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미국은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가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미국 쇠고기 총수출량에서 일본은 26.4%, 한국은 22.6%, 홍콩은 7.7%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일본 쇠고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이 존재한다. 2020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117% 이상이 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관세율이 50%까지 상승하게 된다. 2018년 3월 31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38.5%에서 50%로 관세율이 상승한 바 있다.

2019년 초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을 시작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합의하였다. 쇠고기 관세율은 2018년 38.5%에서 2020년에는 25.8%로 낮아지며, 2033년에는 9%로 더 낮아진다. 미국의 TPP 탈퇴로 쇠고기 수출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았지만 2019년 USJTA로 인해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관세율은 CPTPP 회원국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하락하게 되었다. USJTA 합의 하에 세이프가드 정책은 24만 2,000톤을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며, 2020년도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도 세이프가드 적용 물량을 초과할 경우 매년 수입 허용 물량을 1~2% 증가시키게 된다.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도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 비중이 높은 미국 쇠고기 수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농업부(USDA)는 2020년 쇠고기 총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국 쇠고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 출처: <https://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submitted-articles/theusjapan-trade-agreement-will-it-lead-to-greener-pastures-for-us-beef>

## 2. (2020년 7월 29일) 2020년 4~5월 식육·식조처리장(도계장 등)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이미 보도<sup>2)</sup>한 바와 같이, 4~5월까지 미국의 식육·식조처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한 조업 정지, 일시 휴업 등이 진행되어, 식육·식조처리장 가동률 저하와 레스토랑 휴업 등에 따른 수급 양면에서 혼란으로 도매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혼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미국 보건복지부의 질병대책예방센터(CDC)와 노동부의 노동 안전위생청(OSHA)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령하였다 국방생산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여 잇달아 가동이 재개되고, 6월에는 도축 마릿수가 소에서 전년 동월 대비 1.9%증가, 돼지에서 동 11.7% 증가 등으로 가축을 도축하는 식육·식조처리장에서의 생산량이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 전국 각지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재개되고, 수요 측면의 혼란도 고비를 넘기게 된 결과, 시장의 혼란은 진정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CDC는 6월 6일 전미 주 보건 당국에 5월 31일까지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모든 식육·식조처리장 근로자의 조사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CDC는 7월 7일 ‘식육·식조처리장 근로자의 COVID-19의 상황: 2020년 4~5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월 사이의 식육·식조처리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COVID-19 감염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의 기간산업의 하나인 식육·식조 산업에서 COVID-19가 발생한 것은 다수인에 급격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보고서의 내용]

2)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20年 8月号), ‘牛肉市場`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異例の混乱から回復’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63.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263.html))

- 미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답한 우리 식육·식조 처리장에서 적어도 1건의 COVID-19의 발생이 보고된 23개 주의 239개 시설에서 16,233건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86건(감염자의 0.5%)이 사망하였다.
- 노동자 수가 보고된 14개 주에서 근로자의 감염율은 9.1%였다. 시설 단위로 근로자의 감염률은 3.1~24.5% 범위였다.
- 인종/민족이 보고된 9,919건 중 87%는 백인 이외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근로자 비율은 백인 39%, 히스패닉(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라틴 아메리카) 30%, 흑인 25%, 아시아계 6%인 반면, 감염자 비율은 히스패닉 56%, 흑인 19%, 백인 13%, 아시아계 12%로 치우침을 보이며, 식육·식조처리장에서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근로자의 감염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 감염이 보고된 239시설 중 14주 111시설에서 감염 확대 방지·예방 대책이 보고되어
  - 89개 시설(80%)에서 처리장 입장 때 노동자의 검온 또는 증상에서 스크리닝(검사에 의한 질환의 이환을 의심 또는 발증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그 집단 속에서 선별하는 것)을 실시
  - 86개 시설(77%)에서 감염원 대책(마스크, 페이스 쉴드 등에 의한 보편적인 안면 피복)을 실시
  - 72개 시설(65%)에서 손가락 위생 설비의 추가를 실시
  - 70개 시설(63%)에서 지역 사회 감염이 있었던 지역의 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
  - 69개 시설(62%)에서 노동자 간에 아크릴 판 등의 물리적 장벽을 설치
  - 24개 시설(22%)에서 위생 대책 실시에 관련된 일시적인 처리장 폐쇄
- 이 리포트 결과에 대해서는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서 밖에 응답이 올라오지 않아 시설에 의한 COVID-19의 특정 시기의 차이와 이용하는 검사 수단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노동자의 COVID-19에 대한 폭로는 직장처럼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데이터의 이용에 즈음해서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요소에 주의가 필요하다.
- 공중위생 대책의 실시와 감염 예방 조치는 직업상의 리스크 회피와 취약한 사람들 사이의 건강 격차(의료보험 격차) 해소의 어느 쪽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며, 중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식육·식조처리장 같은 노동자들이 밀집하기 쉬운 직장에서는 COVID-19 감염을 줄이는 예방 조치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COVID-19에 관련하는 이 조사에서 얻은 교훈은 이들의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COVID-19감염의 예방과 리스크 저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생산 및 농업 현장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

- 원문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食肉·食鳥処理場の労働者におけるCOVID-19の状況 : 2020年4~5月」([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27e2.htm?s\\_cid=mm6927e2\\_w](https://www.cdc.gov/mmwr/volumes/69/wr/mm6927e2.htm?s_cid=mm6927e2_w))

### 3. (2020년 7월 30일) 미국 상원 공화당, 1조 규모의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을 공개. 실업수당의 개혁, 학교 및 병원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초점

미국 상원 공화당이 1조 규모의 경기부양법안(Heals Act)을 공개하였다. Mitch McConnell 상원 원내총무는 24일 상·하원 협상을 앞두고 4단계 경제구제를 위한 첫 번째 입안으로 보건경제지원책임보호학교법(HEALS)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제정된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보(CARES)법의 후속으로, 기존 CARES법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한편, 실업수당의 개혁, 학교 및 병원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EALS의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재난소득(1인당 \$1,200) 추가지급, 소상공인 대출 \$1,900억, 계절사업/저소득지역 기업대출 \$1,000억, 실업수당 특례지원 변경, 학교 지원 등이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출처: 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7.28).(원문) Tax Foundation, Senate Republicans Introduce the HEALS Act for Coronavirus Pandemic Relief (2020.7.27.)

### 4. (2020년 7월 31일) 美최대 육류회사 타이슨푸드, 140개 공장 코로나 검사

미국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있는 미국 최대의 육류가공회사인 타이슨 푸드가 앞으로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주일 당 수천 건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하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 전체의 소, 돼지, 닭의 고기 가운데 20%를 생산하는 최대의 육류회사이다. 그런데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증상을 보이는 직원 외에 무증상인 직원들에게까지 무작위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직원들과 가까이 있거나 접촉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타이슨 푸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 있는 140 곳의 생산공장에서 매일 직원들의 출근 즉시, 제일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거치는 것을 최우선 일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타이슨푸드는 앞으로 검사를 실시할 200명의 간호사와 400명의 의료팀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또 진단검사를 진행할 의료책임자도 새로 영입할 예정이다. 타이슨은 이 같은 방역계획을 건강의료 컨설팅회사인 매트릭스 메디컬과 함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타이슨사의 노동자 12만 명 가운데 2만 4,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식품산업 국제노조는 회사의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다른 육류가공회사들도 타이슨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류가공 및 포장회사들의 공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별히 취약하다. 종업원들이 고기를 절단하거나 손질하기 위해 나란히 서서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집한 채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산업 노조에 따르면, 미국 국내의 육류회사에서만 해도 이미 1만 6,210명의 종업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되었고, 그 가운데 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달 타이슨푸드 사의 아이오와주 공장에서는 코로나19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회사가 코로나 유행 초기에 위험을 알고도 직원들을 감염에 노출시킨채 방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동안 타이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많은 새로운 방침을 도입하였다. 4월에는 출근하는 종업원들의 발열 검사를 위해 150대의 대형 열감지 스캐너를 도입하였고,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나눠주었다. 종업원들의 작업대에는 옆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타이슨이 실시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직원은 거의 3분의 1에 달하며, 현재 코로나19 환자로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정도라고 회사는 밝혔다.

타이슨은 한꺼번에 한 공장 전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특정 시기의 상태밖에는 알 수 없다며, 앞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률에 따라서 매주 진단검사를 거의 영구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과 달리 검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타이슨 사의 코로나19 비상대응팀장인 스캇 브룩스 부사장은 이미 수억 달러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지출했다면서, 앞으로 항시 검사에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대개 한 개당 100~150달러의 가격이며 검사 뒤 2~3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타이슨 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는 미국에 있는 공장들만이 대상이다. 타이슨은 태국, 중국, 네덜란드, 호주 등 세계 각지에 대형 공장들을 가지고 있다.

타이슨의 이번 발표로 소비자들은 육류에 대한 꺼림칙한 느낌이 많이 해소되게 되었다. 그 동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서 전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달 아칸소 주의 타이슨 공장에서 가공한 닭고기의 수입을 잠

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타이슨의 진단검사 확대로 중국이 다시 수입을 재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출처) 뉴시스, ‘美최대 육류회사 타이슨푸드, 140개 공장 코로나 검사’, 2020년 7월 31일자

#### 5. (2020년 8월 11일)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美 낙농업계, 갓밀크(Got Milk) 캠페인 6년 만에 부활. SNS를 통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홍보활동 선보여

코로나 확산으로 미국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인 갓밀크(Got Milk)가 6년 만에 부활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다른 유제품과는 달리 우유 판매는 전년대비 8.3% 증가하였고, 특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3월에는 2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캠페인을 선도해온 MilkPEP(Milk Processor Education Program)은 갑작스런 판매 증가가 이를 재개하는 좋은 시기라 판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우유 콧수염을 활용한 이전 광고와 달리,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SNS를 통해 우유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상황들이 공유되고 있다. 최근 올림픽 수영선수 케이티 레데키는 틱톡(TikTok)을 통해, 머리에 우유 잔을 엮고 수영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초콜릿 회사인 허쉬와 협력해, 소비자들이 우유(3.8리터)와 허쉬 시럽 한 병을 함께 구입할 경우 1달러(약 1,180원)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갓밀크(Got Milk) 캠페인은 계속 줄어드는 우유 판매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광고를 중단한바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08.11.호

- 원문 출처: capitalpress.com, 8월 6일자

#### 6. (2020년 8월 12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연방 지원을 받으려는 미국 농민들의 기한 연장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섯다운의 영향을 받은 미국 농민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신청할 시간이 늘어났다. 미 농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식품 지원 프로그램(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 CFAP)을 통한 직불금 신청 기한을 9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7일 수십 개의 농민 단체들이 신청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농장관리국 연맹의 Zippy Duvall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많은 농장들은 이전에 연방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거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 농무부가 홍보 활동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 농무부는 처음에 승인된 지급액의 80%만을 농민들에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작 9주 만에 배정된 16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가 지급되었다. 농무부는 초기 지불에서 보류된 약 18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또한 바나나, 천도복숭아, 마이크로그린(무순과 같이 잎사귀가 매우 작은 녹색 채소), 양, 연어, 틸라피아, 양묘목 작물 및 절화 등을 포함하여 42개의 새로운 작물과 15개의 새로운 가축 또는 양식 분류를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미 농무부 장관 Sonny Perdue는 “CFAP는 생산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견뎌내도록 돕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미 농무부는 대출금 상환 연기에서부터 농작물 보험에 탄력성을 더하고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생산자들을 열심히 돕고 있다” 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eadline extended for U.S. farmers seeking federal aid from COVID-19 damage’,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2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1/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1/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7. (2020년 8월 14일) 美 재생에너지사, 유제품 부산물로 손 세정제 만들어. 유청에서 알코올 증류...알코올 함량 80% 손 세정제 생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전 세계 손 세정제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미국에서 유제품 부산물을 활용한 손 세정제가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뉴욕의 재생에너지사인 New Age Renewable Energy는 당초 주류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장과 협업해 우유에서 파생된 물질인 유청에서 알코올을 증류해 손 소독제를 만들었다.

또한 수분을 증발시켜 알코올을 증류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기 중의 수분을 모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에탄올 증류시 1갤런(약 4리터) 당 5갤런(약 19리터)의 물이 생성되었으며, 유제품 부산물에서 1파운드(약 500g)의 동물성 고단백질도 추출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80%로 메탄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이를 구입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이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전달되었다.

손 세정제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당분간 생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4일자

- 원문출처: [www.dairyherd.com](http://www.dairyherd.com), 8월 7일자

#### 8. (2020년 8월 17일) 美 코로나 사망자 벌써 17만 명. 저소득층은 식량난까지. 경제난·공급차질로 식량 값 올라, 굶주린 有자녀가구 20%로 폭증. 부양책 협상마저 공전 '설상가상'

이달 들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여름에는 바이러스 활동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보다 6주나 빠른 속도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을 돕는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도 길어지며 미국에 심각한 식량난이 도래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인도 등 확진자 수 1~3위 국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반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은 한 달 만에 지역사회 감염 ‘제로’를 선언하며 안정을 찾는 모양새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7만 4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76만 8,242명)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빠른 속도이다. 앞서 미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7만 명에 이르는 시점을 오는 10월1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6주나 빠르게 도달한 것이다.

이 같은 가파른 속도에 지난 6일 IHME는 10월1일 기준 예상 사망자 수를 21만 5,000여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2월 1일에는 사망자 수가 29만 5,0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혀, 사실상 올해 내에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하면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구 절반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셈이다.

길어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굶주리는 미국인도 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인구조사국을 인용해 지난달 21일 기준 유자녀 가구 중 식량난을 호소하는 가구가 전체의 19.7%로 지난달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농무부 역시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수급자가 3월과 4월 사이 16% 가까이 폭증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의 증가폭(7.3%)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공급차질이 겹쳐 식량 가격이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식량 가격이 전년 대비 4.1% 상승해 전체 인플레이션을 1%보다 훨씬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지부진한 경기부양책 협상으로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6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정치권의 갈등이 “추가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미국의 가구를 압박하고, 그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또 상원이 지난주 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휴원했고, 다음달 8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예정이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안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유럽에서도 폭발적인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에서는 신규 확진자 3,310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다. 5월 전국적인 봉쇄령 해제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탈리아 역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며, 약 석 달 만에 하루 신

규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해, 이날부터 전국의 가무시설을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곳곳에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는 반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의 경우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은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한 달 만에 잡힌 것이다. 하지만 해외 역유입 확진자 수는 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규제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서울신문, ‘美 코로나 사망자 벌써 17만명…저소득층은 식량난까지’, 2020년 8월 17일자 기사

- 원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M508TAV>

## 9. (2020년 8월 18일) 미국, 코로나19 대응 식품 꾸러미 사업 실시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 꾸러미(Food Box)를 배송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202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식품 꾸러미 사업(Farmers to Families Food Boxes)은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1차 배송을 통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0만 개의 식품 꾸러미(약 12억 달러 규모)를 전달하였으며, 2차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꾸러미를 추가로 배송하는 중이다.

식품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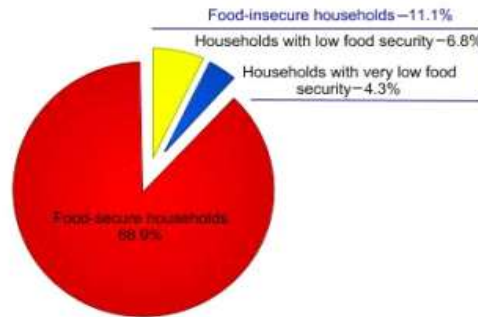
사업의 대상인 취약계층<sup>3)</sup>은 소득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이나 섭취에 방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배송방식은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에서 식당, 호텔 등의 영업 중지로 인하여 일자리를 위협받는 전국 및 지역의 식품 배송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분배 중심지 혹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배송은 미국 전체를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이루어지며, 여러 지역을 동시에 배송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제한사항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식품 꾸러미에 들어갈 상품을 채워야 하며, △보존제, 안정제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제 사용이 금지된다.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USDA ER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2018년)에서는 미국 내 식품안전성 취약계층이 약 11.1%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미국 식품 안전성 취약계층 현황(2018) 】

U.S. households by food security status, 2018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the December 2018 Current Population Survey Food Security Supplement.

식품 꾸러미는 한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유제품 그리고 육류와 계란 등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한다. 전체분량은 총 30~40파운드 무게의 한 가정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식품을 포함하며, 신선 과일 및 채소와 반조리 된 육류를 모두 포함하는 꾸러미(Combination Box)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경우, 10~12파운드 분량의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긴 뿌리채소(감자, 양, 당근, 양파 등)와 과일(핵과류, 사과, 멜론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1~2개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육류와 계란의 경우, 5~6파운드의 반조리 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육류 가공품 2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유제품의 경우, 5~6파운드의 치즈, 버터, 요거트, 사워크림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타로는 식품 꾸러미 내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영양분 표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추적 을 위한 코드, 식품 조리 방법 등 품질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USDA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2020.8.11.),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Basic Ordering Agreement Solicitation” (2020) 등(<https://www.ams.usda.gov/>, <https://www.ers.usda.gov/>)

10. (2020년 8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美 위스콘신 주 낙농가 83% 5년 후에도 낙농업 이어갈 것. 지난 2010년 4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

기상악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낙농가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위스콘신 주 낙농가 대다수가 낙농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위스콘신 주 정부가 낙농가 현황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871개 농가 중 83%가 5년 후에도 낙농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답변했다.

낙농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극한 기상 조건(4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환경규제 강화, 일일지출관리, 시설 노후화와 인력부족 문제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 대유행 전인 3월 중순 실시된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점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며, “10년 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42%만 낙농업을 이어갈 것이라 답변한 것에 비해 낙관적인 상황” 이라고 말했다 .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6일자

- 원문출처: wisfarmer.com, 8월 20일자

## 11. (2020년 8월 31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미국의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수혜자 4,300만 명 발생할 것으로 예측

미국의 식품지원정책(Food Assistance)은 2019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매달 3,570만 명에게 지원을 시행하였다. 식품지원정책은 1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24억 달러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식품지원정책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아침 및 점심 식사 지원 등이 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들은 특정 대상(저소득층 학생, 임산부, 유아 등)에 대한 식품지원이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지원정책이며, 2019년 식품지원 전체 예산의 65.3%가 사용된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 수는 △경제상황 악화,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완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였다. 2009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정책 수혜자는 1,720만 명에서 3,570만 명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 인구가 16%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3년에 4,760만 명(전체 인구의 15%)이 지원을 받아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300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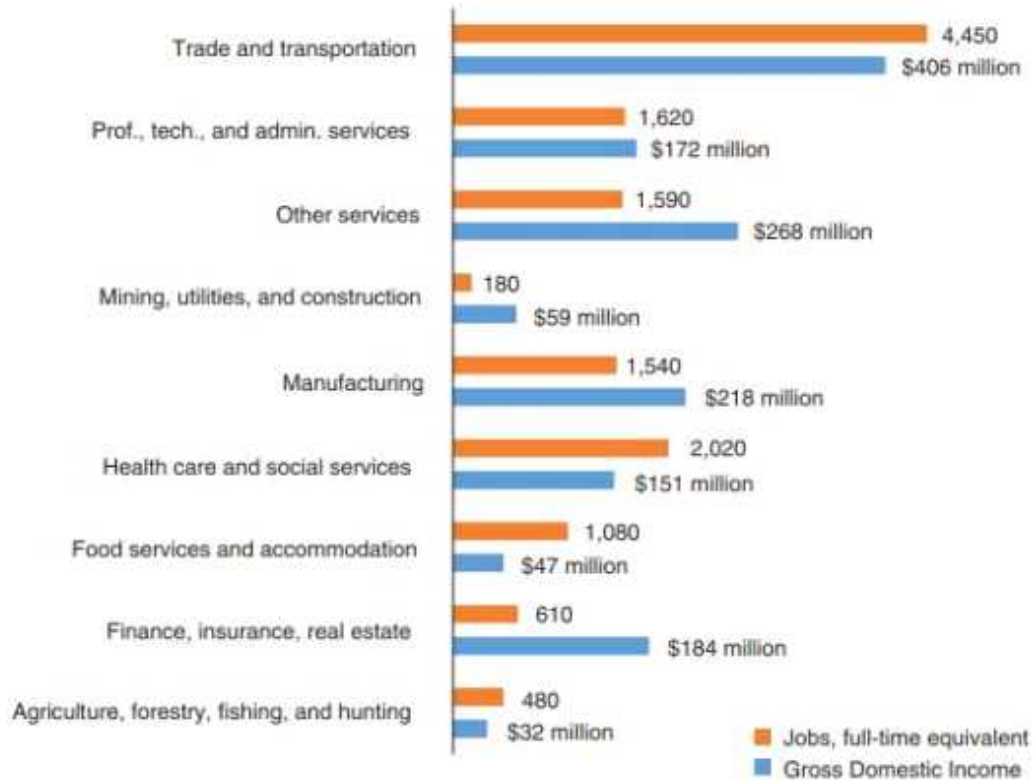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허가된 식품 소매점에서 매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3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2019년 기준). 보조금을 통해서는 담배, 주류, 상점 내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 등은 구매할 수 없다. 단, 스스로 조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조리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하여 산업별로 고용과 소득이 창출된다.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은 1.5의 GDP 승수(multiplier)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1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면, 약 15억 달러의 GDP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10억 달러 당, 13,5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며, 유통 및 운송(소매 및 도매 포함)에서 4,45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고, 농림수산 및 수렵 부문에서는 48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의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증가 효과(2016) ■

Change in annual employment and Gross Domestic Income per \$1 billion per SNAP benefits, 2016



SNAP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ource: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and the Economy: New Estimates of the SNAP Multiplier by Patrick Canning and Brian Stacy, ERR-265,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July 2019.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 출처: 미국 농무부,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iscal Year 2019 Annual Report” (2020.7.31.)와 “Taking a Closer Look at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s” (2020.8.3.)(<https://www.ers.usda.gov/>)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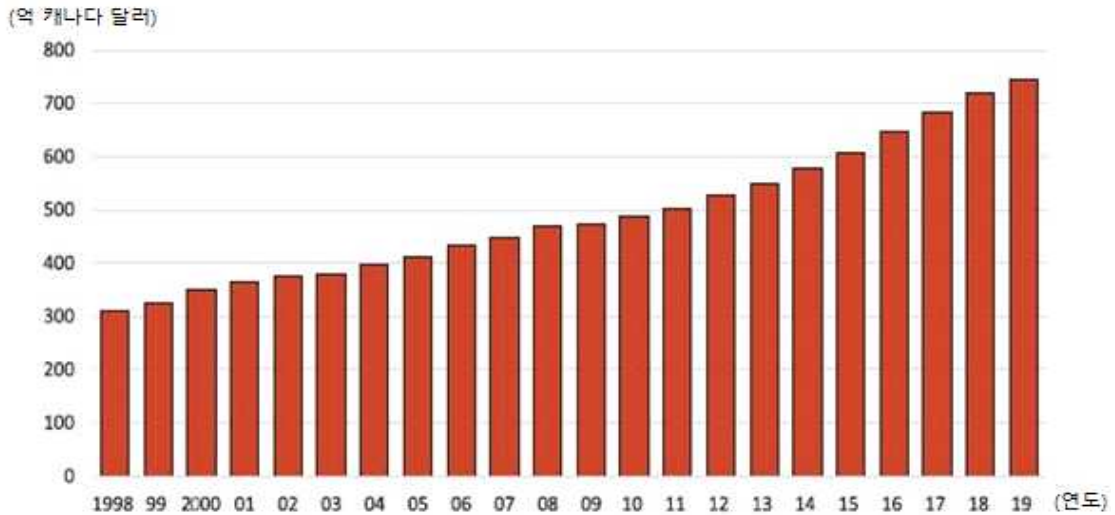
1. (2020년 7월 15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외식·식품 소매업계

<외식동향>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공표한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에

따르면, 2019년의 외식 매출액은 호경기와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난 744억 캐나다 달러(5조 9,551억 엔=67조 1,088억 원<sup>4)</sup>: 1캐나다 달러=80엔=902원)로 과거 최고를 경신하였다(그림 1).

그림 1 캐나다의 외식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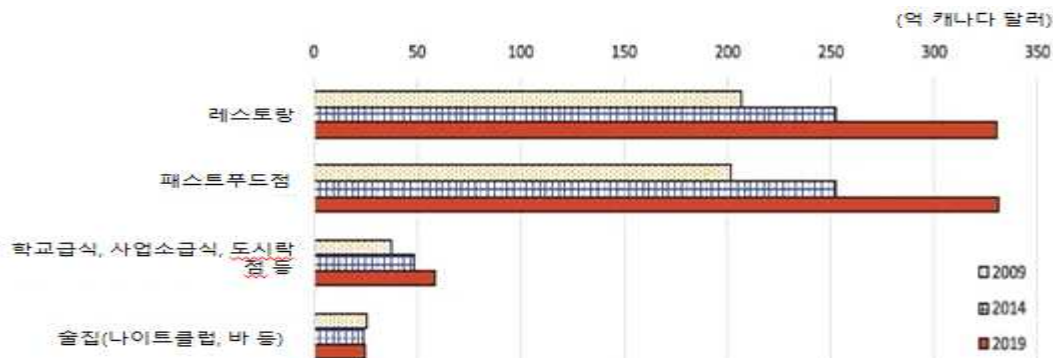


주: 호텔, 오락시설 제외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2019년의 외식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sup>5)</sup>’, ‘패스트 푸드점<sup>6)</sup>’은 5년 전인 2014년과 대비하여 각각 30.8% 증가, 31.2%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있으며, 비중도 같이 44%(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또 ‘패스트 푸드점’은 2015년 이후 적지만, ‘레스토랑’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캐나다의 업태별 외식 매출액 추이(연도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4) 1캐나다달러=902원(2020년 8월 24일 기준) 적용.

5) 주로 고객이 착석한 상태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물이 좌석까지 운반되고 식후에 지불하고 사업소.

6) 주로 고객이 카운터와 전화 등에서 식사를 주문 또는 상품을 선택하는 식전에 지불하는 사업소. 음식물은 사업소 내에서 음식 또는 주문 으로 인해 수용되거나 고객에게 배달된다.

2020년 3월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외출 제한, 음식점 영업 정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식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고 있다(그림 3).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41%가 4월달 1개월 간 완전 휴업하였고, 같은 해 4월 매출액은 외식 전체로 22억 9,500만 캐나다 달러(1,836억 엔=2조 700억 9,000만 원)로 전년 동월 대비 61.4% 감소하였다.

4월 외식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레스토랑’은 주문이나 배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한 점포도 있었지만, 절반 가까이가 완전 휴업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78.1% 감소하였다. ‘패스트푸드점’은 쇼핑몰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완전 휴업이 2할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영업을 계속한 점포의 포장, 배달에 뒷받침되면서 40.6% 감소로, 다른 업태와 비교하면 매출액의 위축이 작았다.

‘학교 급식 사업소 급식, 도시락 전문점 등’은 제공처의 휴교 및 휴업에다 많은 행사가 무산되고 약 절반이 완전 휴업하면서 74.7% 감소하였다. ‘술집(야간업소, 나이트 클럽, 바 등)’은 포장, 배달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하기 어려워, 약 8할이 완전 휴업하면서 90.5% 감소하는 등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그림 3).

그림 3 캐나다의 업태별 외식 매출액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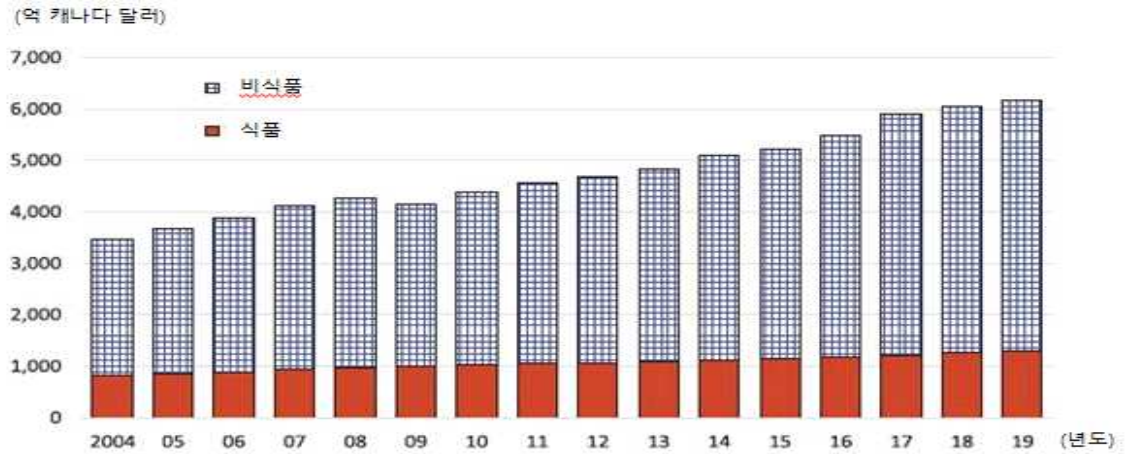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 <소매 동향>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공표한 ‘Retail trade sales by industry’에 따르면, 2019년의 소매업 전체(비식품을 포함)매출액은 외식과 마찬가지로 호경기와 인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난 6,155억 캐나다 달러(49조 2,407억 엔=555조 1,810억 원) 중 ‘식품’(식품·음료 판매점 전체)는 동 2.2% 늘어난 1,283억 캐나다 달러(10조 2,673억 엔=115조 7,266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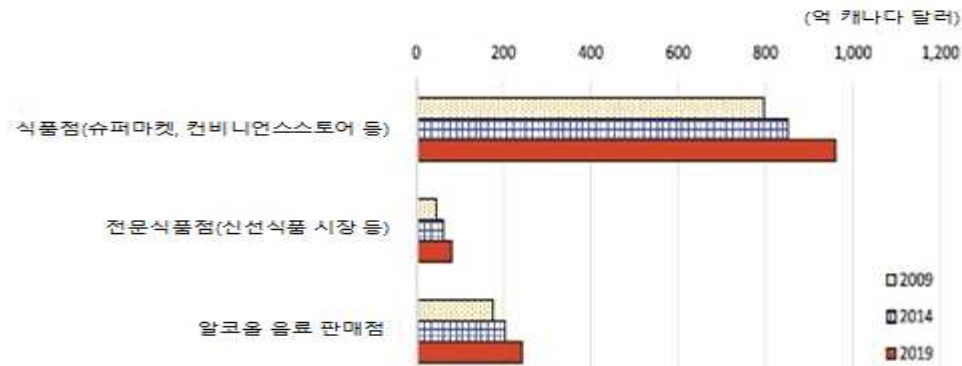
그림 4 캐나다의 소매업 매출액 추이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2019년의 소매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이하 ‘식료품점’)은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12.7% 증가하고, 비중은 75%(2014년 대비 1%포인트 감소)였다. 또 ‘전문식품점(신선식품 시장 등)’ (이하 ‘전문식품점’)은 동 30.5% 증가, ‘알코올 음료 판매점’은 동 19.3% 증가하였다(그림 5).

그림 5 캐나다의 업태별 식품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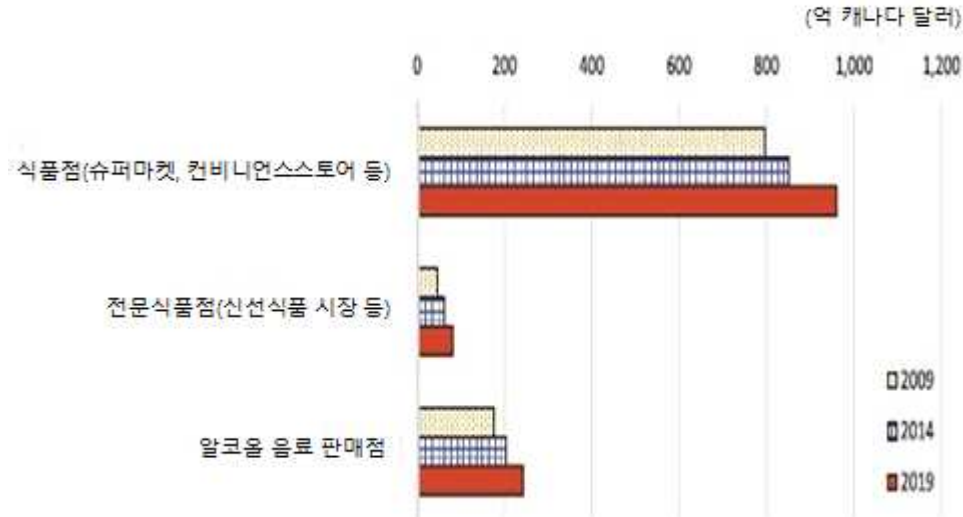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2020년 4월 소매업 전체(비식품을 포함)의 매출을 보면, 비식품 부문이 부진하여 342억 7,600만 캐나다 달러(2조 7,421억 엔=30조 9,169억 5,200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32.8% 줄어 3월(동 10.5% 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을 크게 밑돌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4월에 일시 휴업한 소매점은 전체의 약 3분의 1, 평균 휴업 기간은 8거래일이다. 한편, 식음료 판매점 전체(이하 ‘식품 전체’라 한다)에서 4월에 일시 휴업한 소매점은 1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

4월 소매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식품 전체’는 외출 제한 등의 가정에서의 식사 기회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하였다. 또 3월에는 ‘식품 전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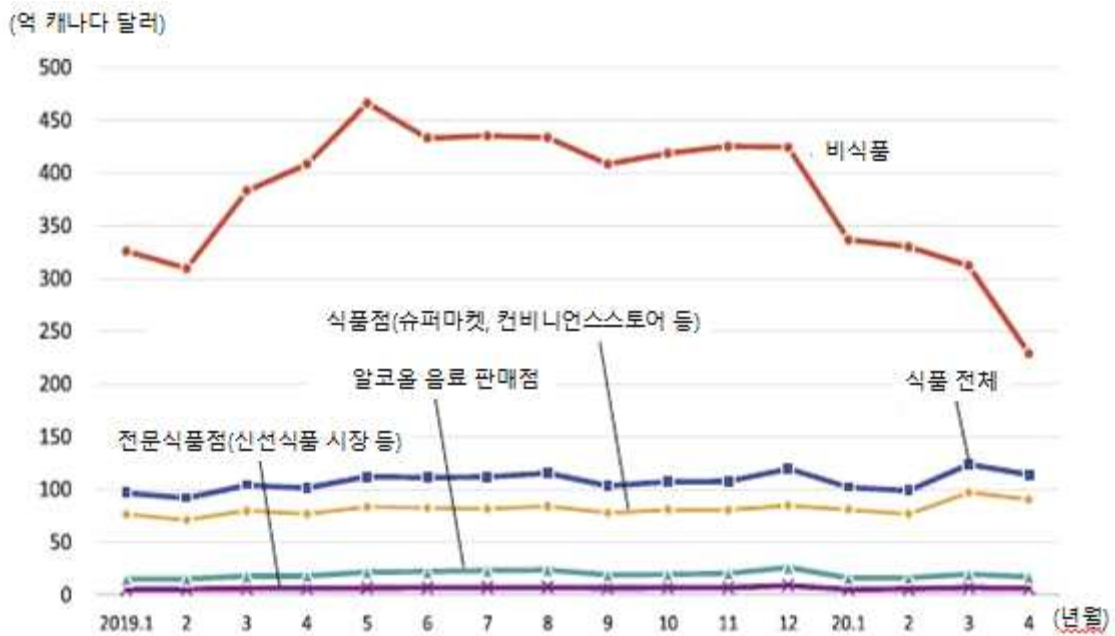
포함된 모든 업종이 전년 동월을 웃돌았지만, 4월에는 ‘식료품점’은 동 17.9% 증가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문 식품점’은 동 4.8% 감소, ‘알코올 음료 판매점’은 동 4.6% 감소로 전년 동월을 약간 밑도는 업태별 차이를 보였다(그림 6, 7).

그림 6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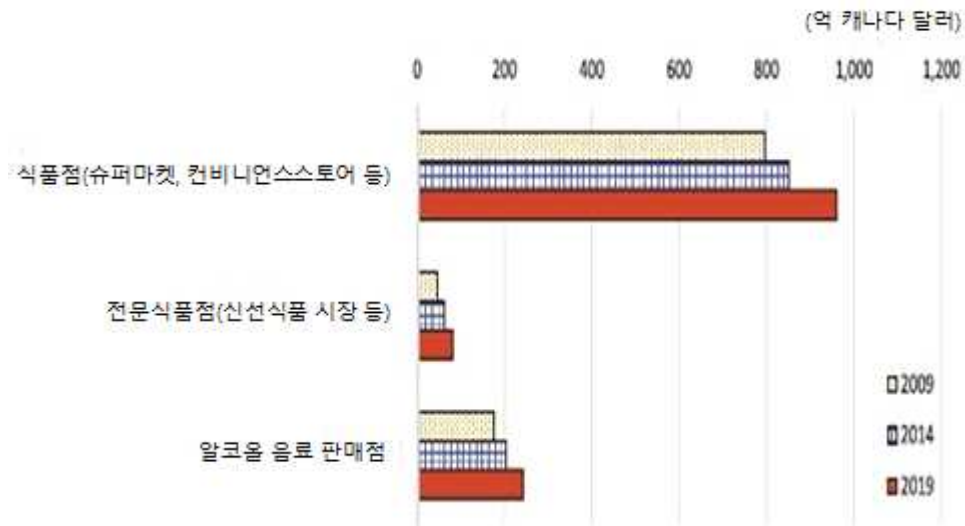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7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 월별)



자료: 캐나다 통계국,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8 캐나다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연도별)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

- 원문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外食支出額 `2019年は過去最高も2020年2月以降急落(米国)」(2020年6月9日)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 II. 남미

### [브라질]

#### 1. (2020년 7월 31일) 코로나 19와 미국의 옥수수과 대두 수요 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브라질 수출기업

미국 내 수출업체들은 내년까지 미국 공급과 잘 경쟁하는 브라질 수출품들을 주시해야 하지만, 이번 달에 기록적인 대두와 옥수수 판매량을 기록하거나 거의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후 다가오는 마케팅 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한 출발을 보일 것이다. 남미 국가는 대두 수출 1위, 옥수수 수출 3위 안에 든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수출 물량이 최소한 평균 이상일 수도 있지만, 브라질의 대두 공급은 곧 미국 수출에 의해 줄어든다. 이번 주 브라질 대두 수출 산업 그룹 Anec은 7월 대두와 옥수수 수출 전망치를 줄였지만 여전히 강세로 보이고 있다. Anec은 이번 달 옥수수 출하량을 540만 톤으로 작년 7월의 기록(590만 톤)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3개월은 보통 브라질에서 가장 큰 옥수수 출하 달이다. 지난해 8~10월 물동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전체 수출액은 2천만 톤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Anec은 7월 대두 수출량이 840만 톤으로 2018년 사상 최대치인 1,020만 톤에 크게 못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수확이 본격적으로 항구에 도착하기 시작한 2월 이후 수출량이 2018년 최고치보다 23% 많은 6,7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대두 수출량은 약 8,000만 톤 이상이며,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적어도 1,200만 톤이 추가로 선적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주 현재 출하 라인업에는 8월에 출발할 예정인 530만 톤의 대두가 나와 있다. 2019년 8월 수출은 500만 톤을 기록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했던 2018년 한 달 최고치인 810만 톤을 크게 벗어났다.

중국은 이달 들어 9월 1일부터 새로운 마케팅 연도에 출하될 미국산 대두의 구매 열기가 활발해졌다. 무역분쟁 이전까지 미국 10~12월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판매 호조에 의존할 것이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그 시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12월 대두 수출은 무역전쟁 여파로 2018년 사상 최대인 1,410만 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330만 톤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700만 톤을 기록한 것이 당시 엄청난 기록이었다.

한편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0/21년 대두 생산량은 1억 3,074만

톤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8명의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다음 시즌 1억 3천만 톤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가뭄 끝에 수확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여론조사는 오일시드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농부들이 2020/21년 사이클에서 생산량을 약 8%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브라질이 마지막 사이클에서 수확한 1억 290만 톤보다 1,000만 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생산자들은 9월 중순부터 새로운 작물을 파종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올해 파종 면적을 거의 3% 늘려 유례없는 3,800만 ha(93.9m)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곡물생산자협회(Aprosoja)의 회장 Bartolomeu Braz Pereira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두 수확량의 거의 50%가 이미 판매되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브라질 북동부의 새로운 농업 개척지로 여겨지는 마토피바 지역을 중심으로 파종 면적이 2%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ian exporters unfazed by strong U.S. corn, soy demand’ 및 ‘Brazil 2020/2021 soybean output may reach record of 130.74 mln T, Reuters poll show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7월 31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99/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399/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2. (2020년 8월 24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브라질 원주민 부족(部族)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브라질정부에 대하여 봉쇄하던 곡물 수출도로 봉쇄 해제

Kabu Institute는 카야포 원주민 부족 회원들이 파라 주정부와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의한 후, 시위 닷새제에 주요 곡물 수출 통로 봉쇄를 해제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BR-163 고속도로는 국내 최대 농장 주 마토 그로소 시의 마을과 파라 주의 중요한 수출 강 관문인 Mirituba항을 연결한다. 대두의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도로에서 수송되는 주요 곡물은 옥수수이다.

이 부족은 연방정부가 노인 4명이 사망하게 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원주민 부족들은 또한 BR-163 고속도로의 포장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가 수년 전에 합의한 환경 보상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abu Institute에 따르면, 파라 정부와의 회담에서 지방정부 대표들도 카야포 요구에 대해 연방정부와의 중개인 회담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들의 불만 가운데, 부족은 마토 그로소 주를 대두와 옥수수를 위한 강 항구로 연결하기 위해 아마존 일부 지역을 횡단하는 이른바 Ferrogrão 철도 건설 계획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자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철도는 BR-163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달릴 것이다. 인접한 Menkragnoti e Baú(원주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카야포족은 이 도로가 그들의 부족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ian indigenous tribe lifts blockade of key grains export road’,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24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38/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38/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아르헨티나]

### 1. (2020년 7월 20일) 아르헨티나 낙농관계자, IDFA 회의에서 중남미 낙농업계, 코로나 피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발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낙농업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원유폐기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중남미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낙농식품협회(IDFA) 화상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낙농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초기 중남미 낙농업계가 미국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은 급격한 우유 수요 감소로 원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반면, 중남미지역은 계절적으로 원유생산량이 적은 시기라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부문에서는 식품서비스업의 소비침체로 치즈 소비가 미국과 비슷하게 급감하였으나, 냉장보관이 필요 없는 초고온살균(UHT) 우유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양호한 날씨와 생산비 감소로 낙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원유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어 향후 원유공급과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낙농뉴스」 2020.07.29.호  
원문 출처 : [lancasterfarming.com](http://lancasterfarming.com), 7월 20일자

### Ⅲ. 유럽

#### [EU]

#### 1. (2020년 7월 2일) EU이사회,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용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

유럽 연합(EU) 이사회는 6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예외적인 추가 지원 조치로 EU회원국들이 생산자에 상한 7,000유로(85만 4,000엔=981만 150원<sup>7)</sup>: 1유로=122엔=1,401.45원), 수산품을 제외한 농축산물 가공, 판매, 개발을 하는 중소 사업자에 상한선 5만 유로(610만 엔=7,007만 2,500원)의 지급을 인정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재원을 활용하고 소매나 시장, 외식 산업 영업 정지 등의 영향으로 COVID-19 피해가 컸던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의 유동성과 현금 흐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장국인 크로아티아의 Marija Vuckovic 농업 장관은 “COVID-19 위기는 EU의 결속에 있어서의 큰 시련이다” 라며 “오늘 채택된 조치는 많은 생산자 및 중소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채택에 관련된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 양측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였다.

이 규칙은 각 회원국들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급 자격이나 요건을 정하고 수익자와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수급 자격이나 요건의 예로는 생산자에 관해서는 생산 부문 생산물의 판매 형태, 계절 노동자 수 등이 사업자에 관해서는 사업 부문 사업 형태 등이 꼽힌다.

보조액은 회원국마다 유럽농업농촌진흥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에서 농촌 개발 프로그램 출연금 총액 최대 2%가 상한이다. 또 지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신청에 기초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치에 관해서는 유럽 위원회가 4월 30일에 제안을 채택하고, 유럽 의회에서 6월 19일 투표 결과 생산자용 상한액이 5,000유로(61만 엔=700만 7,250원)에서 7,000유로(85만 4,000엔=981만 150원)로 수정되었다. 6월 24일 EU이사회가 채택을 받아 이 규칙은 6월 26일자 EU관보에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발효되었다.

#### [지금까지 채택된 대책(EU)]

7) 1유로=1,401.45원(2020년 8월 26일 기준) 적용.

- 유럽 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대책을 채택. 유제품, 쇠고기 등 민간 재고 보조(PSA)을 5월 7일부터. 치즈는 최대 10만 톤 시장 격리(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5월 8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유럽 위원회, 추가 지원 조치를 채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하에 있는 생산자의 현금 흐름 개선 등(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4월 21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
- 유럽 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응하는 농업 식품 부문을 계속 지원(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海外情報(2020년 4월 8일 발)([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6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9月号

## 2. (2020년 7월 21일) 유럽 위원회, 코로나 사태 식육의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6월 중순까지 입수 가능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대에 의해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sup>8)</sup>을 공표하였다.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sup>9)</sup>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국 이 대상으로, 영국은 이행 기간 종료 후에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 육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한다.

### <쇠고기>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5% 감소를 낮추어 동 1.7%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1~3월)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 속에서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증산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2분기(4월)이후에는 외식 산업 영업 정지 등 COVID-19의 여파로 수요 감소, 번식 축군 규모 축소, 봄철 건조에 따른 사료 공급부족 때문에 조기 출하가 늘어나는 점 등으로 감산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외식산업의 고급 부위 수요가 상실되고, 값싼 소매 제품에 수요가 옮겨간 3월 중순 이후 하락 경향에 있었지만, 5월 초 이후 외식 사업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회복세에 있다.

2020년 쇠고기 수출 물량은 BREXIT가 불확실하여 영국 시장 등돌리기도 예상되는

8)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간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간 1회(12월) 발표하였다.

9) 영국은 현재 EU이탈(BREXIT)을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가운데, 전년 대비 2.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에는 영국 이외로의 수출량이 약 3할 증가하고, 전체 수출 물량에 대한 영국용 비중이 전년 동기의 6%에서 50% 정도까지 낮아졌다. 영국과 인접한 아일랜드는 영국용을 전년 동기 대비 1만톤 감소한 한편, 아시아(필리핀, 중국, 일본계: 동 6,200톤 증가), 미국 및 캐나다(동 2,200톤 증가)의 수출을 늘렸다.

한편, 2020년 쇠고기 수입량은 세계의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7.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에는 주로 영국과 남미 남부 공동 시장(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의 관세동맹)에서의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 브라질은 중국 및 러시아용, 영국은 중국, 캐나다, 미국, 대 일본 수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2020년 쇠고기 소비량은 외식 수요 저하, 국내 공급 부족, 수입 물량 감소에 의해 전년 대비 2.3% 감소(1인당 10.4kg)할 것으로 보고 있다.

쇠고기	2019년	2020년
생산량	- 0.9%	- 1.7%
수출량	3.4%	2.0%
수입량	4.1%	- 7.0%
소비량	- 1.0%	- 2.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 <돼지고기>

202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증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2% 증가를 낮추어 동 0.5%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ASF(아프리카 돼지열병)가 EU 역내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돼지 가격이 안정적이며, 외식 수요 회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중심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각국의 양돈산업 투자가 생산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또 수출 수요에 따른 전년부터 고 수준의 가격에 대해서는 3월 중순 이후 외식 수요 저하에 따른 하락세였으나, 쇠고기처럼 외식 사업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회복세에 있다.

2020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ASF에 따른 돼지 사육 마릿 수 감소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왕성한 추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10.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 2020년 돼지고기 소비량은 외식 수요 저하로 전년 대비 2.7% 감소(1인당 30.0kg을 밑돈다)으로 내다보았다.

돼지고기	2019년	2020년
생산량	- 0.9%	0.5%
수출량	8.9%	10.0%
소비량	- 3.6%	- 2.7%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 <가금육>

2020년의 가금육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4% 증가를 대폭 하향 수정하여 동 2.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는 주로 동유럽 지역에서의 투자 진전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지만, 제2분기부터는 수출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금육 속에서도 판매처의 대부분이 외식용인 닭고기 외(오리, 호로호로조(뿔닭), 비둘기, 메추라기)는 COVID-19으로 외식산업 영업 정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또 가격에 대해서는 연도 초에 폴란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수출 감소와 역내의 외식 수요 저하가 함께 떨어졌다.

2020년의 가금육 수출 물량은 폴란드의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경합하는 브라질산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8.0%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제1분기에는 주요 수출국인 필리핀(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및 가나(동 10% 증가)용이 증가하였지만, 영국용이 동 9.0% 감소, 전체로는 동 8.0% 감소하였다.

2020년의 가금육 수입량은 브라질 등 주요 공급국이 중국을 늘리기 등이 영향을 주어, 동 10.0% 감소로 전망하였다.

또한, 2020년 가금 육류 소비량은 외식 수요의 저하로 전년 대비 1.6% 감소로 전망하였다.

가금육	2019년	2020년
생산량	1.6%	- 2.0%
수출량	2.2%	- 8.0%
수입량	1.6%	- 10.0%
소비량	1.5%	- 1.6%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기타, 본 전망에서는 양, 산양의 2020년 생산량, COVID-19으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이 크고, 전년 대비 1.5%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EU전역에서 도시 봉쇄(락 다운)등의 엄정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특히 외식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예측되는 경기 후퇴의 크기 등이 개인 소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내다볼 수는 없다. 또한, 무역 면에서도 2020년 8월 1일에 EU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고, EU의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BREXIT와 영국과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의 행방은 여전히 내다볼 수 있지 않는 등, 2020년 육류 수급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된다고 한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

### 3. (2020년 7월 21일) 유럽 위원회, 코로나 사태의 원유·유제품 단기 수급 전망을 공표

유럽 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6월 중순까지 입수 가능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 및 영향 등을 가능한 한 반영한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sup>10)</sup>을 공표하였다.

유럽 연합(EU) 이탈의 이행 기간에 있는 영국<sup>11)</sup>을 포함하지 않는 EU회원 27개국이 대상으로, 영국은 이행 기간 종료 후에 농축산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 원유·유제품의 수급 전망의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 <원유 생산>

2020년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동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8% 증가를 조금 낮추어 동 0.7% 늘어난 1억 4,400만 톤 미만으로 내다보았다.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동 0.6% 감소)하지만, 남유럽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양질의 목초와 배합사료 사용 증가에 의해 1마리당 연간 유량 증가(동 1.3% 증가)가 증산으로 연결된다고 내다보았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를 보면, 이탈리아(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독일(동 14.0% 증가), 네덜란드(동 13.0% 증가)를 비롯한 유럽 및 서구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목초의 생육 현황이 좋고, 사료 값이 낮아 배합사료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른 증산으로 EU 전체에서 동 2.3% 증가하였다(윤년의 1일 추가분도 영향).

한편, 제2분기 이후에는 기타 지역에서 기온 상승, 가뭄 등 사육 환경 악화가 예상

10) 유럽 위원회는 농축산물의 단기 수급 전망을 연 3회(늦겨울, 초여름 초가을), 중기적 수급 전망을 연 1회(12월) 발표하였다.

11) 영국은 현재 EU이탈(BREXIT)을 했으나, EU법의 적용 속의 ‘이행 기간’에 있다. 이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

되고, 제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제3분기 및 제4분기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로 완만한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원유	2019년	2020년
원유 생산량	0.5%	0.7%
경산유 사육두수	- 1.2%	- 0.6%
1두당 연간 산유량	1.8%	1.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 <치즈>

2020년 치즈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0.7% 증가를 낮추어 동 0.3%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수익성의 높아 증산이 전망되고 있었지만, COVID-19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소매의 수요 증가는 있지만 한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보완에는 이르지 못하여, 그 결과 2020년 치즈 소비량은 동 0.4%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수출량은 일본 및 영국을 위한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동 2.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치즈	2019년	2020년
생산량	0.4%	0.3%
수출량	5.1%	2.0%
수입량	7.6%	- 5.0%
소비량	- 0.1%	- 0.4%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 <버터>

2020년 버터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인 전년 대비 1.6% 증가를 상향 조정하여 동 3.1%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COVID-19으로 외식 수요 저하에 따라 하락하여, 주요 수출 지역·국가인 오세아니아 및 미국과의 가격 차이가 작아져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20년의 버터 수출량은 동 1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외식 수요 저하의 영향은 있지만, 가정에서 조리용, 제빵용 등의 작은 수요가 강하여, 2020년 버터 소비량은 동 0.2%의 미미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버터	2019년	2020년
생산량	1.1%	3.1%
수출량	25.0%	15.0%
수입량	- 0.6%	- 15.0%
소비량	- 0.1%	0.2%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 <탈지분유>

2020년 탈지분유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의 중기 수급 전망치에서 변경 없이 전년 대비 5.0%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COVID-19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하지만, 버터처럼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20년 탈지분유 수출량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2019년 수출 물량에서 10.0% 감소하되, 고 수준인 2018년 정도가 된다고 내다보았다.

탈지분유	2019년	2020년
생산량	0.5%	5.0%
수출량	15.0%	- 10.0%
수입량	22.0%	- 10.0%
소비량	- 2.2%	- 7.3%

※ 각년도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 비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유럽 위원회는 EU전역에서 도시 봉쇄(락 다운)등의 엄정한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여름 휴가 기간 시작과 동시에, 특히 외식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예측되는 경기 후퇴의 크기 등이 개인 소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내다볼 수는 없다. 또 무역 면에서도 2020년 8월 하루에 EU와 베트남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효되고, EU의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BREXIT와 영국과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의 행방은 여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아 2020년의 원유·유제품 수급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

4. (2020년 7월 22일) EU 원유생산, 전년대비 1% 증가 전망,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로 EU산 치즈 재고 증가, EU 4월말부터 개인 보관업자 치즈 보관료 일부 보조금 지급 정책 시행 중

치즈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수출증가로 5%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EU의 원유생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치즈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SDA에 따르면, 4월까지 EU의 원유생산량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부터 영국 대부분 지역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을 중심으로 가뭄이 계속되어 원유생산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 데이터에 따르면, EU 원유생산의 1/3을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5월 원유생산은 전년 대비 각각 2%, 8%,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아일랜드와 체코는 3~4% 늘었다. USDA는 가뭄이 여름시즌까지 이어져 피해를 주겠지만, 가을부터는 정상적인 기상 상태로 돌아와, 올해 EU의 원유생산은 전년대비 1% 늘어난 1억 5,6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치즈 수출은 미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한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5% 가량 늘어난 92만 5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EU산 치즈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는 작년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에 따른 식품서비스 시장 붕괴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0월부터 EU산 치즈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sup>12)</sup>의 영향으로 5월까지 치즈 선적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로 EU산 치즈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EU는 4월말부터 개인 보관업자가 치즈를 보관할 경우 보관료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7.28

- 원문 출처 : dairyreporter.com, 7월 22일자

## 5. (2020년 7월 16일)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자 보호 지침 발표

---

12)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 EU 회원국 제품에 대해 2019년 10월 18일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19년 10월 18일 EU에서 수입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10월 14일 분쟁 해결기구 DSB 특별 회의를 열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 미국이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후 EU 당국자와 미 무역 대표단이 관세 부과 유예를 위한 막판 회담을 벌였지만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결국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항공기 외에 소비재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복 관세 시행을 예고한 와인에도 관세가 붙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산 와인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프랑스는 와인 외에 치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탈리아의 치즈, 영국의 위스키와 사탕, 독일의 커피·과자·와플, 스페인의 올리브와 올리브유도 관세 부과 명단에 포함되었다.(출처: RadioKorea 타운정보, '미국, 와인·치즈 등 75억 달러 규모 EU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2019.10.18. 등록), [https://radiokorea.com/towninfo/local\\_view.php?id=327277](https://radiokorea.com/towninfo/local_view.php?id=327277))

여기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European Commission calls for action in protecting seasonal workers” (2020.7.16.)에 대해 소개한다.

EU의 농업 분야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매년 약 100만 명의 계절근로자가 국경을 초월해 EU에서 활동하지만, 작업의 일시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와 함께 생활 여건이 취약하다. 이에 코로나19가 계절근로자의 근로 안정성을 위협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호 지침을 발표하였다.

먼저, 평등한 대우이다. 계절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된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보수, 해고, 산업 안전, 보건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해당 회원국의 고용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 시 6개월 동안 해당 국가의 노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근로환경에 대해서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20개 이상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원국은 고용주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 계절근로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생활환경에 대해서 이다.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운송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지침은 계절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지와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안전 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넷째,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다. 계절근로자는 사회 보장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해당 회원국의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EU 국가 계절 근로자는 체류의 일시성을 감안하여 일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해 계절 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회원국 간 계절근로자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상설 포럼을 개최하고,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을 초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회원국의 제3국 계절 근로자 보호 이행에 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 출처: <https://ec.europa.eu/>

## 6. (2020년 7월 21일) EU 집행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21~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예산안의 규모는 약 1조 8,243억 유로(2,539조 7,174억 8,800만 원<sup>13)</sup>)로, 2021~2024년에

13) 1유로=1,392.16원 적용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한 차세대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이 포함된다. 차세대 유럽연합의 7,500억 유로(1,044조 1,200억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은 3,900억 유로(542조 9,424억 원)의 양여금과 3,600억 유로(501조 1,776억 원) 규모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회복, 사적 투자 지원 및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예산은 2,399억 유로(333조 9,791억 8,400만 원)로 예산의 약 13%를 차지한다. 농업, 해양 정책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산으로 3,563억 유로(496조 266억 800만 원)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약 2,586억 유로(360조 125억 7,600만 원)는 직불금 및 시장 대응 예산이다.

개정된 공동농업협정은 이전처럼 시장 대응과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Pillar I 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Pillar II로 구성된다. 공동농업협정에는 최대 2,399억 유로(333조 9,79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공동농업협정 예산의 40%는 기후변화대응(Climate Action)에 사용될 것이다.

Pillar I 은 직불금 제도와 매년 4억 5,000만 유로(6,264억 7,200만 원) 규모의 농산물 비축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제도는 2022년은 최소 200유로(278,432원)/ha 수준, 2027년에는 최소 215유로(299,314원)/ha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제도(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의 직불금 상한선은 100,000(1억 3,921만 6,000원)유로로 설정하였다.

시장 조절 및 안정화 그리고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비축량 사용 시, 유럽 농업 보장 기금(European Agriculture Guarantee Fund)의 수익을 통하여 비축량을 유지한다.

Pillar II는 유럽 농촌 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하여 운영되며, 총 778억 유로(108조 3,100억 4,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회원국 중 농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촌 개발에 많이 투자한 경우 등으로 Pillar I 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Pillar II 예산 일부를 Pillar I 로 이전이 가능하다. 예산 이전 신청을 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 원문 출처: EU 집행위원회,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 (2020.7.21.)(<https://ec.europa.eu/>)

7. (2020년 8월 4일)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화 10년 만에 최대 월간 하락 기록하여 유럽연합 밀은 새로운 소식 없이 거의 한 달만에 안정세를 보여

무역업자들은 유럽산 밀이 어떤 방향으로든 뚜렷한 움직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부족하여 거의 한 달 만에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로넥스트의 12월 밀 BL2Z0은 6월 말 기록한 182.75유로와 거의 변동이 없는 톤당 182.50유로로 마감하였다. 동시에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밀 선물 Wv1은 5.31달러로 0.3% 상승하였다.

한 무역업자는 달러 대비 유로화의 상승에 따른 파리와 시카고의 방향차이를 설명하였다.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로 달러화가 10년 만에 최대 월간 하락을 기록하였다. 다음 주 프랑스 항구들, 주로 대서양 항구인 루앙과 라 팔리체에서 곡물 선적량은 12여 척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FranceAgriMer는 프랑스 농민들은 7월 27일까지 올해 연질밀 수확량의 90%를 수확해 1주일 전 71%, 지난해 같은 기간 81%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ends the month nearly flat in lack of fresh new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4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03/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0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8. (2020년 8월 13일) EU, 지난 4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하여 수입세를 부과한 이후 5.48유로/톤 부과로 옥수수 수입 관세 재도입

유럽연합은 수요일 공식 저널을 통해 옥수수 수입세를 다시 도입해 톤당 5.48유로(약 6.42달러)의 부과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요일부로 발효되는 이 관세는 호밀과 수수 수입품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난 4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하여 미국 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하자 유럽연합은 수입세를 부과해 관세 제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 후 유럽연합은 옥수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부과금을 단계적으로 0으로 낮추기 전에 10.40유로까지 인상했다.

미국산 옥수수와 해상 운송료는 지난 한 달 새 다시 하락해 미국산 수입품 가격이 10일 연속 규제 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은 10일 연속 수입가격의 평균이 달라져 관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관세를 폐지할 수 있다.

(\$1 = 0.8530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re-introduces maize import tariff with 5.48 euro/T levy’,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3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2/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9. (2020년 8월 18일) 유럽투자은행, 농촌개발사업 현황 발표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유럽투자은행은 코로나19 대응, 유럽연합의 경기부양책 및 그린딜(Green Deal)과 관련된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회원국 인구 중, 28%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촌은 △교육 인프라 부족, △취업 기회 부족, △낮은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접근성, △부족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개발사업 현황]**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바이오기반경제 및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조림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 △중소규모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딜 정책의 일환,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촌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사업들이다. 최근 유럽연합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자 지원방법이 자금자족이 가능한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기후변화대응]** 유럽투자은행은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bioeconomy)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하여 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유럽투자은행이 투자하는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 분야는 △기후회복력이 있는 생산기술(Climate-resilient production),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소재 사용 기술(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newable materials),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지속가능한 포괄적 농촌개발(Sustainable and inclusive rural development)이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 및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분야에 유럽투자은행은 327억 유로 규모의 협조융자(co-financing<sup>14</sup>)를 제공해 왔다. 순환경제에 대한 용자는 자원 효율적인 농식품 생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대체재를 이용한 식품 포장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자의 사례로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축산 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루마니아의 Winnow사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식당들의 음식물 관리 효율화 등이 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조림 사업 시행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를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을 시도한다. 특히, 낙후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보안을 통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농업(Smart eco-efficient agriculture)으로의 전환을 가능<sup>15</sup>하게 한다.

**[농촌 일자리 확보]** 농식품가치사슬에 포함된 농민, 협동조합, 중소기업체(SMEs and Midcaps)에게 우선적으로 용자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약 80%가량의 관련 용

14) 바이오기반경제에 대한 협조융자는 농업·식품·산림 산업 분야에 40%, 농업 생산에 29.7%, 도소매업 관련 부문에 2.1.7%가 사용되었으며, 임업 생산, 자원 보호, 바이오에너지, 수산업 및 양식업 등에도 용자가 지급됨.

15) 광대역 인터넷 보급 정책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계획에서도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진행하려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개정된 공동농업 협정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자가 투자되었으며,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을 위해 약 7억 유로의 용자가 추가적으로 배정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 원문 출처: 유럽투자은행, “A vision for rural Europe - Harnessing the potential of rural areas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 prosperous Europe” (2020.7.7.), “Agriculture, bioeconomy and rural development OVERVIEW” (2020)(<https://www.eib.org/en/index.htm>)

8. (2020년 8월 31일) 유럽의회조사처,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처할 수 있는 66개의 구조적 위기(Structural Risks)를 제시하였다. 15년간 유럽연합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사회복지 및 건강, △경제 및 재정, △정치 및 민주주의, △유럽연합 내부, △환경, △디지털, △유럽연합 외부의 정치적 위기로 구분하였다.

66개의 위기 중 8개가 농업과 직접 연관된 위협이며, 5가지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구분된다.

▣ 유럽연합 농업부문의 구조적 위기 ▣

구분	위기의 심각도	구분
즉각적인 대응 행동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며, 발생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li> <li>• (환경 위기) 기후변화대응 실패,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li> </ul>
저감 정책 시작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및 재정적 위기)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유럽 농산물시장 불안정</li> </ul>
주의 필요	영향이 보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작음	-
추가 연구 필요	영향이 제한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및 재정적 위기) 유럽 내 식량 부족</li> </ul>

경제 및 재정적 위기에는 시장 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식량안보 위기 및 높은 식량 가격) 「2020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 55개국의 13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에 처했고, 2020년 말에는 265만 명까지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며, △메뚜기떼의 습격,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농업생산의 집중도 상승)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의 농가 약 420만 개가 사라졌으며, △약 3.1%의 농가가 유럽 농지의 50% 이상을 경영하고, △고령화로 인

해 35세 미만 농업 종사 인구가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유럽 농산물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농산물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왔으며,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시장의 변화, △농업 연구 및 투자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다.

**(유럽 내 식량 부족)** 유럽 내 식량 생산은 자급 가능한 수준이나, △계절 및 이주 노동자의 노동 공급 부족, △유통망 붕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으나, 다른 위기들과 달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 위기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그린딜(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등의 정책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대응 실패)**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기업 재정 악화로 인한 저탄소 연구 감소 등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실패 시, 심화된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자원 문제 및 농지의 감소)**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식량, 수자원의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오염으로 인한 토지 및 수자원 피해 등 환경파괴로 인하여 농업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와 중요자원의 고갈)** △외래종 침입, △중요 자연자원의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적절한 정책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변화 심화로 △기후난민 문제, △건강 불평등, △식량안보 위기 등이 더욱 커졌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 출처; 유럽의회조사처, “Toward a more resilient Europe post-coronavirus: An initial mapping of structural risks facing the EU (2020.7.29).”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

## [영국]

### 1. (2020년 8월 3일) 英, 코로나 기간 중 치즈 소비 48% 증가, 우유 구매율 94%로 대체음료(16%) 보다 높은 등 우유 유제품 판매 크게 늘어

영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유와 유제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기반 컨설팅 전문기업인 Kanta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영국 가정의 94%가 우유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에 그친 우유

대체음료 구매 비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로, 봉쇄기간 동안 우유 판매가 늘어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치즈의 경우도 가정에서 샌드위치와 점심을 만들어 먹는 등 홈쿡 소비 증가로 봉쇄기간동안 4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피자의 경우는 온라인 조회 수가 235%나 늘었다. 버터의 경우도 홈쿡 소비증가와 바나나 빵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22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판매량이 69%나 늘어나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Milk Your Moments 캠페인도 유제품판매 증가에 한 몫 했다는 평가이다. 이 캠페인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유와 유제품이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20년 만에 실시한 TV광고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8.5

- 원문 출처: dairyindustries.com, 8월 3일자

## 2. (2020년 8월 10일) 英 농부들 뜻밖의 신사업…코로나로 ‘농촌 캠핑’ 인기. 코로나 불황에, 브렉시트 앞두고…막막했던 농부들 ‘대체 수입원’ 찾아

영국 웨일스 남부 펨브로크셔 스트럼블 헤드의 바위에서 8일(현지시간) 한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다. 많은 영국인들이 코로나19 탓에 ‘스테이케이션’을 선택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EPA 연합뉴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서포크 지역에 사는 농부 조너선 심퍼(54)는 최근 정신없이 바빠졌다. 강가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캠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심퍼는 9일(현지시간) “강 어귀에 있는 우리 농장은 정말 아름다운 곳” 이라면서 “이번 주말 예약이 꽉 찼다” 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농가들이 바이러스가 불러온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붐’ 을 타고 새로운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스테이케이션은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물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런던을 비롯한 도시에선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역 때문에 시민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여행도 어려워졌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가까우면서 안전하고 한적한 곳’ 을 휴가지로 선택한다. 대형 리조트나 호텔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과 반대로 농가의 지주들은 신사업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가디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이미 가시화됐고, 영국 농가는 유럽연합(EU)이 지원해주는 농업 보조금이 사라지기 전에 수익성을 확보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많은 농부들이 캠핑장을 열어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다” 고 전했다. EU는 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연간

65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새빌즈는 지주들에게 농업이 아닌 관광 및 레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이먼 포스터 새빌즈 관광업 분야 총괄은 “캠핑은 이미 존재하던 휴가 트렌드였지만 팬데믹이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최근 몇 달간 급증하고 있고, 이 변화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내 많은 농장들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캠핑과 글램핑을 선택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퍼도 그런 농장주들 중 하나다. 그는 코로나19 봉쇄령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농부이면서 어부이기도 한 심퍼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조업에도 나가지 못했다. 심퍼는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지었지만 수익을 낼 수 없었다”면서, “도매상에게 아스파라거스를 팔아야 하는데 런던의 음식점이 모두 닫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입은 손실을 캠핑장 운영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내년 캠핑 예약도 받고 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부수입을 얻을 방법을 찾던 농부 닉 무어(55)는 요즘 ‘팝업 캠핑장’으로 돈을 벌고 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휴가철엔 농장 일부를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무어는 잉글랜드 남부 햄프셔 지역 뉴포레스트 국립공원 언저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얼마 전 약 4000㎡ 규모의 캠핑장을 열었다.

그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많은 상황이 변할 것”이라면서,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중 야영객을 보내고 새로 주말 고객을 맞이하던 그는 “지금 완전히 녹초가 됐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늘어놨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예약이 모두 차고 있다. 무어는 앞으로 매년 캠핑장을 열 계획이다.

온라인 캠핑 예약 사이트 ‘쿨 캠핑’의 제임스 스미스는 “지난해 대비 두 배 가량의 새로운 캠핑장이 올해 문을 열었고, 대부분 농지에 생겼다”면서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英 농부들 뜻밖의 신사업…코로나로 ‘농촌 캠핑’ 인기’, 2020년 8월 10일자 기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1722&code=61131611&cp=nv>)

### 3. (2020년 3월 31일) 英, 올해 젓소 사육두수 2.9%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단기공급과잉이 원인...4세 이상 감소 두드러지고 2세 이하는 소폭 증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영국의 젓소 개체수가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 (AHDB)는 최근 7월 1일 기준 영국의 젓소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5.1만두 줄어든 168만 두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인 △1.3%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4세 이상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6세의 감소폭은 최근 3년 평균인 △1.0%를 크게 앞섰고, 특히 8세 이상의 경우는 △2.0%로 최근 3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반면 2세 이하의 경우는 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마릿수가 증가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HDB는 올해 감소폭이 커진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원유공급과잉으로 보고 있다. AHDB는 영국 낙농가의 1/4이 4월부터 우유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많은 낙농가들이 생산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젖을 짜고 있는 오래된 젖소부터 도태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HDB 관계자는 “이제 우유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으므로, 젖소 사육두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31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8월 20일자

## [독일]

### 1. (2020년 7월 30일) 독일 포장업체, QR코드 활용한 1:1 마케팅방식 선보여, 이리유업 제품에 도입...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해 홍보효과 제고

독일의 포장전문업체인 SIG가 음료제품의 두껍 안쪽에 숨겨진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1:1로 소통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선보였다. ‘One Cap, One Code’ 로 알려진 이 방식은 중국 최대 유업체인 이리유업의 발효유 제품인 ‘Perfect Love’에 도입될 계획인데,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제품 두껍 안쪽에 있는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온라인상에서 WeChat(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사은품 제공여부 확인과 함께 제품정보 제공, 추천제품 소개 등을 보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SIG 관계자는 “QR코드를 통해 1:1로 소통하는 홍보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정보와 재미를 제공한다” 면서 “이리유업은 이 방식을 도입해 기존 오프라인 소비자를 온라인 회원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SIG는 이 기술을 휴대용 콤팩트 팩에서 처음 출시했는데, 이번에 식품과 음료제품의 홍보용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7월 30일자

- 원문출처 : dairyreporter.com, 7월 22일자

## [러시아]

### 1. (2020년 6월 11일) 러시아 농업부, 2025년까지 러시아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목표 축소 제안

러시아 농업부는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러시아 농업부는 2017년에 발표한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축생산지수<sup>16)</sup>와 농업생산지수<sup>17)</sup>에 대한 지표를 축소하여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표 수정은 러시아 국내 인구 소득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재배 비용, 광물·비료 비용, 기술 장비 및 농업기계 부품 비용에 대한 다른 국가가 취한 제한 조치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생산지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15.8%에서 10.8%로 감축하며, 전체 농업생산지수는 기존의 15.1%에서 13.9%로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결과로 관련 업계의 투자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투자 프로젝트는 건설, 현대화, 재건, 기술 재설비를 위한 이행 기간 연장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정부는 농산물 수출 증가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불리한 기후 조건과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작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총 곡물 생산량은 밀을 포함하여 1,250만 톤에 이를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0/21시즌에 필요한 양의 이월량을 유지하면서 곡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사나 룿(Oksana Lut) 농업부 차관은, 최근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곡물, 채소, 가축 및 가금류 생산에서 모든 주요 분야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농업은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수입대체산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적인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농업부의 농산물 수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16) 축산업 생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모든 소스의 육류와 우유, 치즈 등 유제품, 달걀, 꿀, 생실크, 모직, 가죽, 가죽 등이 포함되는 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나타낸 지수이다.

17) 생산지수(production index, 生産指數)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에 대응되며, 생산수량의 동태적 변화를 나타낸다. 개별품목의 기준시에 대한 비교시의 생산수량의 변화를 산출하고, 각 품목의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附加價値)를 가중치(weight)로 하여 합성된다. 일반적으로 광공업·농수산업 등의 산업별로 작성되는데, 농수산 담당부서에서 조사·발표하는 농업생산지수, 재정경제 담당부서에서 발표하는 산업생산지수(원지수와 계절변동조정지수)와 제조업 특수분류별 생산지수,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부서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생산지수 등이 있다. 이들 생산지수는 부가가치 가중치를 사용한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에 의해 산출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가 가격이 높은 채소류 대신 저장이 용이한 곡물류를 구입하며, 쇠고기를 찐 닭고기로 대체하는 등의 소비 형태의 변화도 농업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 제133호 (2020.6.22<sup>18</sup>)

- 원문 출처:

[http://www.finmarket.ru/news/5261635?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http://www.finmarket.ru/news/5261635?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https://yandex.ru/turbo/s/ng.ru/economics/2020-06-21/1\\_7890\\_agriculture.html?d=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https://yandex.ru/turbo/s/ng.ru/economics/2020-06-21/1_7890_agriculture.html?d=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

## 2. (2020년 7월 10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물동량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4.1% 증가. 곡물 운송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9,040만 톤이며,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러시아 무역항 협회는 건화물은 5억 6,350만 톤(+3.7%), 액체화물은 3억 4,060톤(+4.9%)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1~5월 보스토치니항 물동량은 총 3억 2,910만 톤이고,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바니노항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1억 3,660만 톤을 기록했고, 나호트카항은 1억 1,33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으며, 브리로드노항 또한 7.6% 증가해 7,460만 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블라디보스톡항 물동량은 9,26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데 카스트리항 역시 작년 동기 대비 4.1% 감소해 5,710만 톤을 기록하였다. 기타 항만 물동량은 1억 7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였다. 작년 1~5월 물동량 증가율은 2%였으나, 올해는 7%에 달한다

올해 5월 극동 지역의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수입화물은 5.6%, 수출화물은 14.3% 증가했으나, 연안화물은 통과화물은 각각 1.2%, 20.7% 감소하였다. 올해 5월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의 28.9%를 차지하였다.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보스토치니가 33.6%, 바니노가 16.3% 나호트카가 10.9% 차지하였다.

올해 5월 기준 극동지역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 중 48.2%는 석탄과 코크스였으며, 22.9%는 석유가, 6.5%는 석유제품이 차지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화물종류는 곡물이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하였다. 반면 금속가루는 33.9%, 화학제품은 71.3% 가량 감소하였다.

18) 표지에는 132호(2020년 6월 19일)로 되어 있으나, 133호(2020년 6월 26일)을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북방물류리포트」 제135호 (2020.7.10)

- 원문출처: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portov\\_dalnevostochnogo\\_basseyna\\_rf\\_v\\_yanvare-mae\\_2020\\_goda\\_vyros\\_na\\_4\\_1.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portov_dalnevostochnogo_basseyna_rf_v_yanvare-mae_2020_goda_vyros_na_4_1.html)  
<http://infranews.ru/logistika/more/56250-gruzooborot-portov-dalnevostochnogo-basseyna-rfv-yanvare-mae-2020-goda-vyros-na-41/>

## [우크라이나]

### 1. (2020년 8월 18일) 우크라이나, 2020/21년 밀 수출 한도를 1,750만 톤으로 설정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무역상들은 7월부터 시작된 2020/21년 마케팅 시즌에 밀 수출량이 1,750만 톤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월요일 연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밝혔다. 경제부와 상인들은 매년 밀이 마케팅 시즌에 얼마나 많이 수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한다. 이 문서에서 무역업자들은 합의된 수출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경제부는 수출규칙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끝난 2019/20년 마케팅 시즌에 2,050만 톤의 밀 수출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19년 사상 최대인 7,510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지만 기상 악화로 올해 생산량이 7,210만 톤까지 떨어질 수 있다. 경제부는 4분기 중 “기상 조건과 최종 밀 생산 통계에 따라” 수량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13일 현재 파종 면적의 96%에서 2,550만 톤의 밀을 수확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830만 톤의 밀을 수확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sets 2020/21 wheat export cap at 17.5 mln tonnes’, KREI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8월 18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7](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427))

- 원문 출처: Thomson Reuters

## [크로아티아]

### 1. (2020년 8월 3일) 크로아티아 농업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포도주 생산자 지원 위해 다년간 원조 프로그램 발표

7월 23일 크로아티아 농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포도주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년간 원조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Assistance to the Wine Sector for the period 2019-2023)을 발표하였다. 농업부는 당초 계획했던 4,300만 쿠나(한화 약 79억 7,300만 원)에 더하여, 1,300만 쿠나(한화 약 24억 1,00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HGK, Croatian Chamber of Commerce) 포도주 생산자 협회는 “이번 조치로 위기를 겪는 포도주 농가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라며 환영을 뜻을 표명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 포도주 생산량 70% 가량이 관광·접객 산업을 통해서 소비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타격이 포도주 농가에도 미치고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포도주 소비량은 평년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올해 매출 전망은 전년도 5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7.28.).  
(원문) Total Croatia News, Croatia Week 등

## IV. 오세아니아

### [호주]

#### 1. (2020년 8월 20일) 호주, 뉴질랜드 및 아태지역 11개국 협력...동물매개 질병 확산문제 해결 위한 컨소시엄 구성하여 가축질병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동물 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호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호주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이 컨소시엄은 호주를 비롯해 뉴질랜드 및 아태지역 총 11개 국가의 전문가 40여명이 동물보건 당국과 협력해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농가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 발병을 조기 감지하고, 이를 예방 및 효율적으로 대응 통제하기 위한 가축질병 수사관(animal disease detectives) 양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수의사 및 수의사 보조원은 생산현장의 가축 생활패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질병 조기 감지와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호주 수의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동물 매개 감염병과 가축 질병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동물매개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0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8월 17일자

#### 2. (2020년 8월 26일) 코로나 원인조사 둘러싸고 호주와 중국간 긴장고조, 호주 당국, 중국 명뉴의 호주 유업체 인수 불허, 무역 분쟁 등으로 이어지며 관계 악화

최근 호주와 중국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뉴그룹의 호주 유가공기업 인수가 호주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명뉴그룹은 지난 25일 시드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이언 유업을 4억 3천만 달러(약 5,160억 원) 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8월 11일 호주 재무장관이 명뉴의 호주기업 인수는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말한 지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명뉴그룹의 라이언 유업 인수는 명뉴와 라이언 유업회사의 소유주인 일본기업 기린의 합의에 의해 작년 11월 결정되었다. 호주 규제 당국인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Competition&Consumer Commision)도 지난 2월 이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실시 후 인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호주와 중국 간 관계가 악화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 조사를 중국에 요구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과 보리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맞받아쳤다.

그리고 지난 주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이 외국인투자 심사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호주 파이넌셜 리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호주 재무장관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이들은 거래 취소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수입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호주 통상장관은 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일축하였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8일자

- 원문출처: edition.cnn.com, 8월 25일자

## V. 아시아

### [아세안]

#### 1. (2020년 8월 5일) 아세안+한·중·일 농림장관 사전준비회의, “코로나19發 식량안보 공동 대응” 협력방안 논의, “회원국간 연대 강화…비상시 공공비축제도 활용” 키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코로나19에 따른 식량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8월 5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1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전 국장급이 참석하여 상정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의장국인 브루나이와 한·중·일이 공동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아세안+3 비상 쌀비축제(APTERR<sup>19</sup>)와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sup>20</sup>)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의제도 결정하였다.

APTERR은 아세안과 한·중·일간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하여 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이다. 약정 물량은 총 78만 7,000t으로 한국은 15만t을 약정하였다. AFSIS는 아세안 국가 식량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고서 발간과 인적자원 역량 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각 국은 회의에서 2016~2025 아세안+3 협력 전략에 따른 9개 협력사업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농정성과 확산과 산림 협력, 초청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AFSIS 정보 공유, 등 분야별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세안 사무국은 또 지난 4월 14일에 열린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인용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다.

알라딘 릴로(Aladdin D. Rillo) 아세안 사무차장은 아세안+3 정상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회원국간 연대 강화를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표명하였다. 비상시 식량부족을 극복하고, 역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한·중·일 간의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비축제도(약정 총 787천 톤, 한국은 150천 톤 약정, 그간 5개국 15천 톤 지원)

20)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자원 역량개발 프로젝트 추진

APTERR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10월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출처) 이데일리, “아세안+한·중·일 “코로나19發 식량안보 공동 대응””, 2020년 8월 6일자 기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 [중국]

### 1. (2020년 7월 3일) 국내 최대 거래 규모 농산물 전문 도매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영업을 정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신발지(新發地) 도매시장에서는 시장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0년 6월 13일부터 영업을 정지하고 있다.

신발지 도매시장은 총 면적 121.3헥타르, 직원 수 1,759명, 시장 내 점포 수 5,558호, 고객 기업 8,000개인 전국 최대 거래 규모 농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물동량은 베이징 시 야채 공급량의 70%, 과일 공급량의 80%, 돼지고기 공급량의 10%, 소, 양고기 공급량의 3%를 차지한다. 이 시장의 영업 정지가 베이징 시내의 신선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베이징 시 상무국은 올해 6월 12일 보도 자료를 가지고, “베이징시의 신선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슈퍼는 자신의 공급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대형 마트 장악은 직영 생산 및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발지 도매 시장의 영업 정지가 생필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의견을 표명하였다.

올해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까르푸(외국계 대형 마트)는 “국산 농산물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신선 채소, 과일, 고기류는 신발지 도매시장에서 구입했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 자본 대형 마트인 경객룡(京客隆)은 “신선 농산물은 자가 생산·판매를 벌이고 있으니, 신발지 도매 시장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보도 시점에서 베이징의 많은 대형 슈퍼 중 야채(일부의 잎채소를 제외)의 물품 부족이 생기는 곳은 소수에서 시금치, 고구마 및 당근 등은 풍부하게 있다는 것이었다.

<p>사진 1 신발지도매시장: 육류거래구역의 돈육시장(2020년 6월)</p>	<p>사진 2 신발지도매시장: 돈육시장 내부(2020년 6월)</p>
	
<p>사진 3 신발지 도매시장: 쇠고기, 닭고기 거래구역(2020년 6월) 신발지도매시장에서는 돈육과 그 외 동물성 단백질로 거래되는 건물이 다르다.</p>	<p>사진 4 베이징 시내 까르푸의 돈육 거래장(2020년 6월) 500g당 60-80위안(100그램 당 약 184-275엔 = 10,320-13,760원, 1위안=15.3엔=172원<sup>21)</sup>)</p>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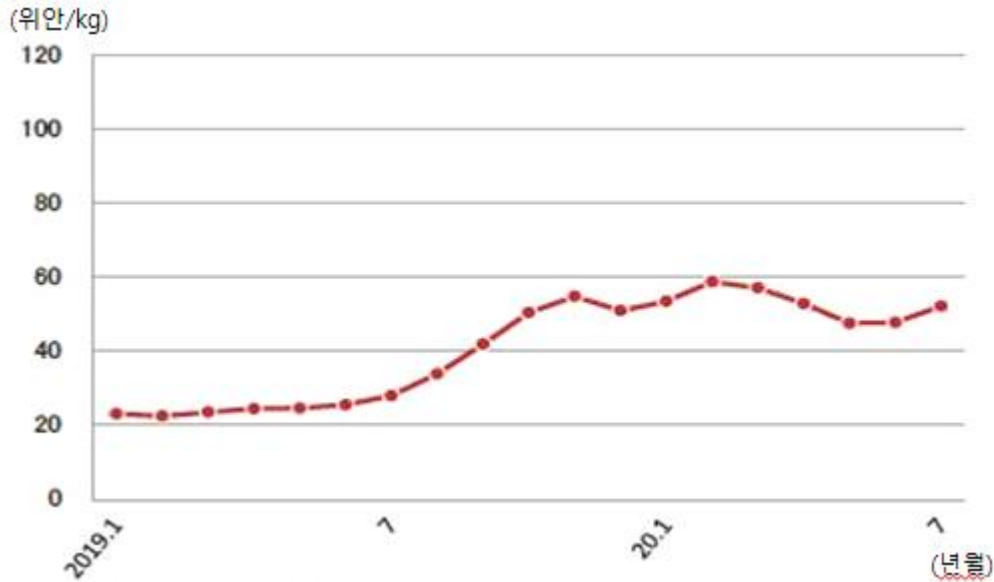
## 2. (2020년 7월 15일) 2020년 상반기 양돈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배(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양돈업의 이익은 꽤 크게 증가하여 돼지 기업은 증가하였다. 한편 도축기업의 이익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현지 조사 회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의 일관경영 농가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96% 증가(약 19배)인 1마리당 2,311위안(3만 5,821엔=39만 7,492원: 1위안=15.5엔=172원)이었다. 비용 면을 보면 생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값은 동 5.7% 늘어난 1톤당 2,293위안(3만 5,542엔=39만 4,396원)이었다. 그러나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라 소비가 감퇴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수급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고가의 성향 변화는 없으며(그림 7),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21) 1중국 위안=172원(2020년 8월 26일 기준) 적용.

그림 7 돼지고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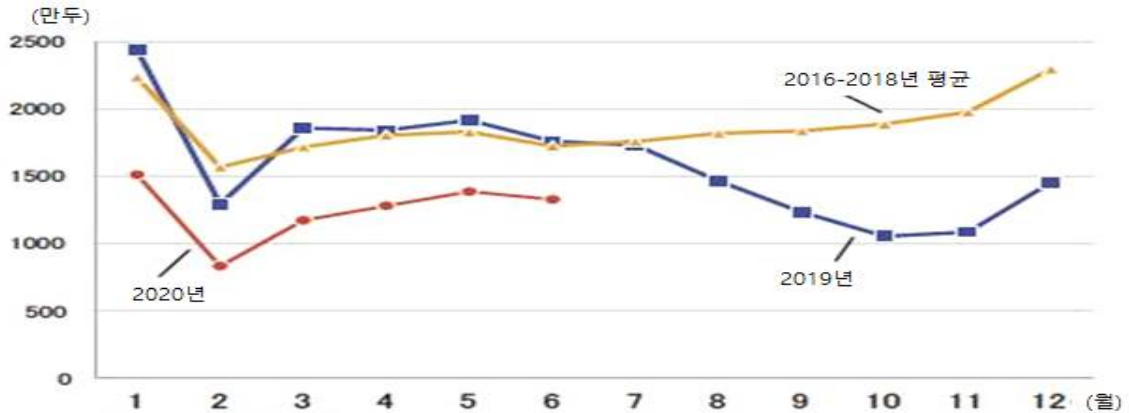


주: 500개 현의 농무시장(農貿市場, 산지근교에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장)의 평균치  
 자료: 농업농촌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年 9月号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운데 상장 양돈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며, 현지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10개 가까운 상장 기업에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고 돼지 기업수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30일 시점의 데이터에 따르면, 1~5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6만개 이상인 양돈 기업이 신규 사업 등록되었으며, 총 기업 수는 74만 개나 되었다. 새로운 등록 기업은 주로 농축수산업, 어업 및 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7할 이상은 개인 경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베이 성, 산둥 성, 윈난 성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지 조사 회사에 따르면, 도축기업의 이익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1~6월)보다 78.2% 감소한 1마리당 14위안(217엔=2,408원)이었다. 많은 지역에서는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100위안(1,550엔=17,200원) 이하로 된 기업도 있다. ASF와 COVID-19로 도축 마릿수가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그림 8), 인건비와 위생비 등의 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출 제한으로 외식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신선육을 직매하지 못하고 보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2019년 중에게 헐값에 사들인 냉동 돼지고기를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손실을 보충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다수 도축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현지 전문가가 말하였다.

그림 8 돼지 도축 마릿수 추이



주: 연간 2만 마리 이상 처리하는 도축장에서의 도축마릿수(전체의 30%)

자료: 농업농촌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9月号에서 재인용

또한 도축기업의 영업 인가에 대해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9년 11월에 지방 정부에 대해 운용의 엄격화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환경 규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거나, 노후 시설이나 기존의 기술로 식육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0년 9月号

### 3. (2020년 8월 10일) 중국, 홍수·코로나·돼지열병까지...중경제, V자반등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V자형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던 중국 경제가 최악의 홍수를 만나면서 주춤하고 있다. 중국 장시성 포양호 인근에 사는 바오 원타오씨 가족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약 20만 위안(3,000만 원<sup>22)</sup> 상당의 농작물을 손해봤다.

바오씨는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쌀이 거의 다 익어서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내 땅이 아직 물 속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지난달 포양호의 독이 붕괴됐고 ‘어류와 쌀의 땅’으로 불렸던 일대 수 천㎡의 농지가 파괴됐다. 중국 비상 관리부는 파괴된 농지와 도로, 기타 재산에 대한 피해 금액이 210억 달러(24조 9,585억 원<sup>23)</sup>)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로 인해 농민 등 5,500만여 명도 피해를 입었다.

중국 선완홍위안 증권은 지난달까지 중국 농경지 피해를 고려할 때 중국이 작년보

22) 1위안=120원 적용

23)1달러=1,188.5원 적용

다 1,120만 톤의 식량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국이 생산하는 쌀의 5%에 해당한다. CNN은 “이번 재앙은 코로나19(COVID) 대유행으로 취약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평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방출해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앞으로의 위기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 19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홍수 피해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현재 중국의 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일대에는 이달 중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쪽을 중심으로 내렸던 폭우가 밀과 옥수수 수확을 위협하면서 북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노무라증권 분석가들은 지난달 말 “이번 홍수는 1998년 이후 최악의 홍수”라며 “앞으로 몇 주 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홍수가 끝날 경우 3분기에는 농업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17억 달러(2조 204억 원) 이상의 손실에 해당한다.

이미 분석가들은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데이터 제공업체 SCI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1년 전보다 20% 급등했는데, 이는 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옥수수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면서 옥수수 부족 사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콩값도 급등했다. 중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산 대두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약 30% 급등했다. 중국 선물 중개업체인 바오청선물 애널리스트들은 콩값 상승이 기상악화 우려와 미·중 무역관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급히 지린성 북동부 농민들을 방문하고, 이를 TV로 중계한 것도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고 있다. 최근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올 상반기 약 6,100만 톤의 곡물을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리서치업체 텐핑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어느 날 수입을 중단하거나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식량 공급망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홍수·코로나·돼지열병까지…中경제, V자반등 멀어지나’ 2020년 8월 10일자 기사

- 원문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014500779676>

#### 4. (2020년 8월 14일) 시진핑 주석,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만큼 ‘식량안보’ 경각심 강조

2013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또 ‘잔반(殘飯·먹고 남은 음식)’ 줄이기 운동을 재개했다. 미중 갈등, 남부 대홍수, 돼지고기 옥수수 등 식품 값 급등 등으로 내부 불만이 팽배한 상황을 대대적인 선전운동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영 신화왕(新華網)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1일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 단호히 막아야 하므로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풍년이라도 식량안보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떡방(먹는 방송)’ 콘텐츠도 집중 단속할 뜻을 밝혔다. 이미 더우인, 콰이서우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대위왕(大胃王·대식가)’이란 검색어가 사라졌고, 유명 떡방 계정도 속속 삭제되고 있다. 관영 중국중앙(CC)TV 역시 ‘떡방’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외식업계에는 손님 수보다 1인분을 적게 시키자는 뜻의 ‘N-1’ 운동이 불고 있다. 일부 식당은 보증금을 먼저 받은 후 음식을 많이 남긴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도 계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중국에 매우 화났다. 끔찍한 질병을 막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문제 삼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옛 소련보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훨씬 맞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뉴스는 조만간 미국이 곧 미국 내 공자학원을 제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공자학원이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공산당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 권력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4위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가족들이 홍콩에 최소 5,100만 달러(약 604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큰누나 치차오차오(齊橋橋)는 드러난 것만 최소 1,9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고급 빌라를 보유해 미국의 홍콩 제재가 강화되면 이들의 재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11일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979년 양국 단교 후 미 최고위 인사인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 직후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양국이 사전 공감대를 가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만은 미국과의 FTA를 원했지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의식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출처) Donga.com, ‘시진핑 “음식 낭비말라” ‘떡방’ 콘텐츠 집중단속’, 2020년 8월 14일자 기사

## [일본]

### 1. (2020년 7월 30일)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프리미엄 소비의 일종으로서 DIY 각광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프리미엄 소비의 일종으로서 DIY가 각광받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셀프 키트 배송, 레시피의 SNS 발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자원’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켜주는 ‘노하우’를 결합해 서비스화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애즈어서비스(aaS)’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애즈어서비스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업계인데,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MaaS(Mobility as a Service)’<sup>24)</sup>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밀키트(meal kit)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도 애즈어서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오이식스’는 월 정액요금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레시피(노하우)와 함께 식재료 세트(자원)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이식스의 밀키트는 부엌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메인 요리와 반찬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식재료를 낭비하는 일도 없고 마트에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식품 대기업 ‘닛신식품’은 ‘잇푸도’ 등 유명 라멘 전문점 5개사와 제휴해 라멘 배달 서비스인 ‘RAMEN EX’를 시작하였다. ‘우버이츠’ 등 딜리버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라멘을 주문하면 반조리된 라멘(면, 수프, 토핑 세트)이 30분 이내에 집으로 배송되고 간단한 조리 과정을 통해 바로 유명점의 라멘을 먹을 수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뉴노멀 속 일본 소비자 DIY 각광 (2020.7.27.)

### 2. (2020년 8월 20일) 日 코로나로 외식 급감해 고기 재고량 63만 3천 톤으로 역대 최대치

24) MaaS: 셰어링을 기반으로 자가용,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자원)을 연결하고 애플리케이션(노하우) 등을 통해 배차를 받아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크게 줄자 고기 재고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6월말까지 식육(식용 고기)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고기 17%, 돼지고기 11.6%, 닭고기 11.3%가 늘어나 총 62만 3천 톤으로 기록이 확인 가능한 지난 1994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일부 창고에서는 사용률 100%를 초과해 운반용 통로에도 재고를 보관하는 등 늘어나는 재고량 처리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일본냉장창고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무용 출하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중국 등 수입 고기의 양도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한국면세뉴스, ‘日 코로나로 외식 급감해 고기 재고량 63만 3천 톤으로 역대 최대치’, 2020년 8월 21일자 기사(<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78>)

### 3. (2020년 8월 31일) 일본,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를 활용한 지역 지원 증가, 주요 식량 재고 증가

#### [고향세를 통한 지역 피해지원]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향세<sup>25)</sup>※를 활용한 지역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후루사토 초이스(고향세 납세 종합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러스트뱅크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기부 중 답례품을 받지 않는 기부가 증가하였다. 2019년 대비 금액 기준 1.8배, 건수 기준 2.4배가 증가하였다.

트러스트뱅크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피해를 계기로 지역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부금 사용법에 대한 의식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거버먼트 클라우드펀딩<sup>26)</sup> 이용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루사토 초이스를 통한 코로나19 대책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금액이 2020년 7월 말 기준 5억 6백만 엔을 넘었다. 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활성화 될 기회이며,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에는 고향세 기부에 대한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 금액의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재고 증가]

25) 태어난 고향 및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가 가능함. 기부자가 기부 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기부 대상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26)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화, 이에 대하여 고향세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형태로 지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포를 해제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음식점 영업 전면 재개가 늦어지면서, 소고기 및 쌀, 버터 등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용 식재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용 및 가공용 식재 판매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체 수요 침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2020년 7월 연휴 전까지는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2차 전파 우려로 인한 외식 자제에 따라 외식용 소고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외식 감소로 인해 소고기 재고량이 전년을 웃돌고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국산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575톤이다. 수입 소고기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은 15만 톤에 육박하여, 통계치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쌀]** 전체 30%를 차지하는 식당 및 가공용 쌀의 수요 감소 장기화로 인해 재고량이 예년 이상으로 늘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020년 6월 말 시점의 민간 재고량은 201만 톤으로 4년 만에 200만 톤을 초과하였다. 도매상은 식당 및 가공용 쌀 수요 감소를 가정용 쌀 판매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음식점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으로 판매처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6월 식당 및 가공용 쌀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하여, 5월 감소 폭보다 회복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판매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버터]** J 밀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버터 재고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만 9천 톤에 이르며, 이는 음식점 및 특산물용 가공품 판매량이 저조한 것에서 기인한다.

**[탈지분유]** 코로나19로 인해 원유에서 탈지분유로 전환한 재고가 소진되지 않아, 2020년 8월 말 재고량은 8만 톤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웃돌 전망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5(2020.8.31.)

- 원문출처: 일본농업신문 “ふるさと納税 “返礼品なし寄付 2倍 コロナや災害 「地域応援」意識高まる” (2020.8.24.), 일본농업신문 “[新型コロナ] 緊急事態解除3カ月 牛肉, 米, バター, 脱粉在庫積み上がる” (2020.8.26.).(<https://www.agrnews.co.jp/p51725.html>, <https://www.agrnews.co.jp/p51707.html>)

## [북한]

### 1. (2020년 8월 3일) 제재·코로나19에 폭우까지… 북한, 3중고에 시름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폭우 관련 일기 예보를 하며 이날 저녁부터 6일까지 개

성시,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특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 TV는 3일 폭우 관련 일기 예보를 하며, 이날 저녁부터 6일까지 개성시,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며, 해당 지역에는 '특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 했다.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기록적인 폭우' 까지 쏟아지면서 북한 당국의 시름이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마땅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함에도, 결과물은 커녕 당장 사흘 넘게 이어질 폭우와 비바람 피해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부가 관심인데, 한편으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北, 호우 특급경보 발령... 대비책 강조

북한이 연일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4일 기상수문국(기상청) 자료를 인용하며 “3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많은 비 특급경보가 내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해안과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에는 중급경보, 양강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특급경보가 내린 지역에는 이날부터 6일까지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은 현장 상황을 언급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큰물(홍수), 센바람에 의한 침수, 저수지 범람, 산사태 등 재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4면 대부분을 할애하여, “전국 각지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문은 이어 하천 정리와 배수로 정비, 제방 보강, 농경지 배수·양수기 전력보장 노력을 소개하고, 특히 “탄광 및 광산 지역에서는 미광(광물 찌꺼기)과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도시에서는 상하수도 등을 정비해 도로와 주거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물이 쪽쪽 빠질 수 있게 높아진 바닥은 파내야 한다”며 “배수양수기들이 모두 가동할 수 있게 전력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북측의 폭우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하면서도 피해 규모는 알리지

않았다.

박봉주, '코로나 방역 전선' 남포항 현지시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남포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영남배수리공장 등 생산현장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 北간부들, 코로나19 방역 실태 잇단 점검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북한은 최근 고위급 간부를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하면서 방역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지역의 민생까지 두루 둘러보는 행보를 펴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권력 서열 3위' 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의 남포항 방역사업 실태 점검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 남포항은 북한 최대의 물류기지로, 평양의 관문이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30일 북한 내 2인자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개성시 인근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사업 실태를 점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영남배수리공장 등 남포시의 여러 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첫 머리에 '최대비상체제는 고도의 각성과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논설을 싣고, "악성 비루스(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업은 사회와 집단, 국가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업"이라며, "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하나와 같이 절대복종하고 움직이는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선 "비상사태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 "맞다든(맞닥뜨린) 방역위기"라고 표현하는 등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북한은 지난달 개성 출신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자 25일 바로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과 철도·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 北경제난, 최악 관측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화한데다, 폭우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t으로, 북한의 연간 쌀 수요량인 550만t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비료수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4월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장마철 폭우까지 덮쳤다. 장맛비는 농작물 작황에 치명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식량난을 경험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액도 급감했다. 지난 1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9680만 2천 달러(약 1158억원)로, 전년 동월( 2억 2663만 9천 달러) 대비 57%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연초전망 3.7%보다 10%포인트나 내려간 수치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엮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이 3중고에 빠졌다”면서도,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는 달리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전략적 문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남측과의 단기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지원을 해도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 천지일보, ‘[정치in] 제재·코로나19에 폭우까지… 북한, 3중고에 시름’ 2020년 8월 5일자 기사(<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393>)

## [스리랑카]

### 1. (2020년 8월 10일) 스리랑카, 최근 국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스리랑카의 차 생산 부문도 점차 재가동되고 있는 추세

2020년 1/2분기 스리랑카의 차(茶)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76% 감소한 1억 2,9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스리랑카의 차 수출량은 전년 대비 14.5% 감소한 1억 2,9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스리랑카 차의 최대 수출국은 이라크, 터키, 러시아, 이란이다.

실론 티 브로커(Ceylon Tea Brokers)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리랑카는 이라크에 1,620만 톤의 차를 수출했으며, 이는 2019년 수출량인 1,960만 톤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터키로의 차 수출량은 2019년 1,810만 톤에서 2020년 1,570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러시아로의 차 수출량은 2019년 1,490만 톤에서 2020년 1,44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대(對)이란 차 수출량은 890만 톤에 달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및 중국으로는 각각 670만 톤 및 500만 톤의 차가 수출되었다.

스리랑카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0일부터 시행한 국가 봉쇄로 인해 차 생산 및 판매에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국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스리랑카의 차 생산 부문도 점차 재가동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6월 스리랑카의 차 생산량은 2,680만 kg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 6월 차 생산량인 2,750만 kg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10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7.31).  
(원문) Economy Next, Economy Times 등 (2020.7.28.)

## [파키스탄]

### 1. (2020년 8월 31일) 파키스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망고 수출 목표에서 4만 5,000톤을 초과 수출

파키스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망고 수출 목표에서 4만 5,000톤을 초과 수출하였다. 파키스탄 전국과일채소수출업협회(PFVA, All Pakistan Fruit & Vegetable Exporters, Importers & Merchants Association)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8월 19일 기준 12만 5,000톤의 망고를 수입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7,200만 달러(한화 약 854억 2,800만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와히드 아흐메드(Waheed Ahmed) 파키스탄 전국과일채소수출업협회 후원자(Patron-in-Chief)는 망고 추가 수출 달성이 파키스탄 정부가 적시에 내린 공격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와히드 아흐메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여겼으며,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행이 중단되자 망고를 해상 및 육상 교통로를 통해 수출하는 시기적절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와히드 아흐메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로 인해 망고를 비롯한 고영양 식품에 대한 필요가 급증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8.21.),  
(Profit by Pakistan Today, The Express Tribune 등 (2020.8.19.))

## [방글라데시]

### 1. (2020년 7월 10일)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국가봉쇄 재연장,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흥 위해 자국 수출업체 지원에 노력

방글라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국가봉쇄를 재연장하였다. 2020년 6월 30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봉쇄 조치를 8월 3일까지 추가로 연장하였다. 방글라데시 당국의 봉쇄령 연장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방글라데시 전국에서 통행금지령이 지속될 예정이며, 시장, 상점, 쇼핑몰은 오후 7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남아시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3월 26일 처음으로 국가봉쇄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장기간의 국가봉쇄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5월 초부터 점차 국가봉쇄를 완화하여 왔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었다.

국가봉쇄 완화 조치 시행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7월 2일에는 역대 최대인 4,019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6월 30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가장 많은 64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7월 6일 기준 방글라데시에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 6,000명을 돌파하였으며, 사망자는 2,096명에 달하였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그간의 봉쇄로 크게 위축되었고, 이번 봉쇄 연장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방글라데시 수출진흥국(EPB)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수출량은 전국적인 국가봉쇄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57% 감소한 14억 6,000만 달러(1조 7,534억 6,000만 원<sup>27)</sup>)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4일 방글라데시개발연구원(BIDS, 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글라데시 인구의 13%가 실직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방글라데시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이 5,000타카(7만 900원<sup>28)</sup>) 미만인 방글라데시인들의 19.23%가 월 소득이 지난달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7일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PD(Centre for Policy Dialogue)는 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로 방글라데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CPD에 따르면, 이번 예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봉쇄가 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방글라데시 당국의 이번 봉쇄령 연장으로 올해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7) 원/달러 환율 1,201원 적용

28) 원/방글라데시 타카 환율, 1타카=14.18원 적용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흥을 위해 자국 수출업체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중 수출지향 산업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500억 타카(7,090억 원)를 따로 마련하였다. 5월 중순 방글라데시 당국은 자국 수출업체들에 대해 원자재 수입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특정 산업체들이 원자재 수입을 위한 선불세(AT, advance tax)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5월 17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자국 의류 및 섬유 업체들의 수출진흥기금(EDF, Export development fund)에서의 대출한도를 기존의 2,500만 달러(300억 2,500만 원)에서 3,000만 달러(360억 3,000만 원)로 확대하였다. 이어 6월 15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역 및 각종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대출 상환 기한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7월 1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은 방글라데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불보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해외 수입업체들이 직면할 지불불이행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상무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국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 경제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타격이 찾아왔다고 하며, 유럽연합(EU)에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인 EBA(Everything but the Arms) 제도를 2027년 이후로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년 7월 10일)

- 원문 자료:

Daily Observer, Restriction measures over corona extended till Aug 3, 2020.07.01.

The Indian Express, COVID-19: Bangladesh extends restriction measures till Aug 3, 2020.07.01.

The Statesman, Bangladesh govt decides to extend Coronavirus restrictions till Aug 3, 2020.07.01.

Business Insider India, Bangladesh extends coronavirus restrictions till August 3, 2020.07.01.

The Independent, \$12.11b stimulus packages to fight COVID-19, 2020.07.01.

The Daily Star, Bangladesh seeks extension of EU trade benefits even after LDC graduation, 2020.06.29.

Dhaka Tribune, Lowest projected GDP growth in 25 years, 2020.06.07.

The Financial Express bd, GDP growth rate may come down to 2.50pc: CPD, 2020.06.07.

## [필리핀]

### 1. (2020년 8월 14일) 필리핀 정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낙농가 위해 어린이 영양 강화 프로그램 실시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 유지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최근 교육부와 농업부는 국립낙농당국(NDA)과 전국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28,6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함께 신선한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은 지역 낙농가와 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다.

당국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의 생계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립낙농당국(NDA)은 이번 프로그램과 별개로 어린이들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 지자체 학교 등과 제휴하여, 자체적으로 우유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4일자

- 원문출처: pia.gov.ph, 8월 9일자

### 2. (2020년 8월 31일) 필리핀 정부, 농수산업 성장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루어 왔던 F2C2라는 ‘새로운 방식’ 을 도입, 다시 농수산업에 투자

필리핀 농수산업계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이것이 영세화 및 과편화된 농가와 어민 때문이라는 사실은 필리핀 정부도 알고 있다. 그동안 농수산업 육성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필리핀 정부는 농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10% 미만으로 처음 떨어졌던 지난 2018년, 농수산업 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new thinking)’ 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농수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가 언급한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농가 혹은 어민 가구를 집단화 및 조직화하여 커뮤니티를 형성,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F2C2(Farm and Fisheries Clustering and Consolidation) 정책을 구상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을 잠시 미루었다가 최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F2C2 정책으로 농촌 혹은 어촌을 보다 큰 단위로 구분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책도 지금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역 농가와 어민도 그룹 단위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더

육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자본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농수산업계에도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위원회(CHEd,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에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농가에 이를 교육하는 필리핀 농업 기술 패널(TPA, Technical Panel for Agriculture)을 완전히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농업 현대화를 통해 동일 면적 당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농수산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식량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기조가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최근 농수산업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 국가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시, 필리핀 정부의 농수산업 육성 정책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8.27.)

## [인도네시아]

### 1. (2020년 7월 30일) 인도네시아 산업부, 2020년 상반기 수출 실적 발표. 제조 섹터 중 식료품 부문이 총 246억 달러 매출로 수출 기여도 가장 높아

최근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2020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제조 섹터 중 식료품 부문이 총 246억 달러(한화 약 29조 6,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총 246억의 식료품 수출액 중 식품은 137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6조 5,250억 원), 음료수는 108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850억 원)로 두 부문 모두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료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 수출 증가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산업부는 평가하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인 인도네시아 4.0 로드맵(Indonesia 4.0 Roadmap) 가운데 식료품 산업 발전 계획도 있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식료품 시장의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에 즉석식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는 등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액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내수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 식료품 산업을 보다 수출 지향적인 구조로 바꿀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7.27.), (원문) Antara News, Saigon Online, Jakarta Post 등

## [말레이시아]

### 1. (2020년 8월 31일) 말레이시아 정부, 국가 경제 회복 계획(Penjana, 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도심지 농업 개발 계획을 수립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는 앞으로 도시 지역 가구가 개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업식품산업부는 우선 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도시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작물 재배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가이드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 종자와 비료를 지원할 것이며 텃밭과 농기구 등 각종 농업 인프라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 가계 지원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다. 도시 지역 가계가 직접 먹거리 작물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할 경우, 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기에 말레이시아 국민의 실질적인 식품 안전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각 가정이 평소 먹을 식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말레이시아 가계의 식량 안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1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2020.8.26.), (The EDGE Market, Govt allocates RM10m for urban agriculture project, says Che Abdullah (2020.8.23.)

## VI.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 (2020년 7월 30일) IMF 집행위원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43억 달러 규모 긴급 금융지원 제공

IMF 집행위원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43억 달러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집행위원회는 RFI(Rapid Financing Instrument)에 따라 남아프리카의 긴급 재정 지원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로는 최대이며, IMF는 현재까지 남아프리카에 총 18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IMF외에도 세계은행(20억 달러), 브릭스신개발은행(10억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3억 달러) 등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7월 30일 - 원문출처: 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관련 동향 및 해외시각(7.28).(원문)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4.3 Billion in Emergency Support to South Africa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2020.7.27.)

### [나이지리아]

#### 1. (2020년 8월 3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현지 시골 경제 보호 위해 공인 수입업자들에게 옥수수 수입 중단 지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타파 수단으로 국산품 소비 유도를 추진하였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현지 시골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 수입업자들에게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생산가공업협회(MAGPAMAN, Maize Growers and Processors Association of Nigeria)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가 현지 옥수수

생산량을 늘리고 관련 유통 사슬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스타파 아흐마두(Mustapha Ahmadu) 나이지리아 생산가공업협회 회장은 톤당 16만 5,000나이라(한화 약 50만 원)까지 상승한 옥수수 가격이 안정될 것이며, 자국 옥수수 수요 또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 7. 30).  
(원문): AllAfrica, Thisday Newspaper 등

## [코트디부아르]

### 1. (2020년 8월 3일) 코트디부아르 정부, COVID 19 확산 피해 축소를 위한 지원책으로 수입 제한 등의 규제 실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COVID 19 확산 피해 축소를 위한 지원책은 물론 수입제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최대 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업 부문을 육성하고 특히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캐슈넛, 면, 천연고무, 팜유, 카카오, 커피 등의 제품 생산 지원에 4억 2,9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채소, 과일 등의 식품 제조에도 8,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탕수수 가공 및 설탕 제조 관련 현지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 확대를 위해 2024년 초까지 설탕 수입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효자 품목인 카카오와 커피의 경우 시장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에는 정부 개입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정부 보증 가격을 도입, 영세 농가 소득 보전을 지원하기도 한다.

캐슈넛의 경우에는 단순 수출 억제 및 현지 가공 장려 차원에서 현지 생산의 15%는 가공업체에 공급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단순 수출분에 대해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특별 세금 부과한다. 캐슈넛 가공 관련 설비/기계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현지 생산 캐슈넛 열매를 구입하는 가공업체에 보조금 지급,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 스마트 트랩(Smart trap) 등의 신기술 활용도 증가세이다.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육성 의지에 비해 생산성 제고 등 해결 과제가 여전한 가운데 몇 가지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기대를 한층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론과 자동 병충해 포획 장치인 스마트 트랩이다. 과거 영상 촬영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드론을 통해 경작지 현황 파악, 농약/해충제 살포 등이 가능해지면서 재배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병충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에서 병충해 포획 사실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도구로 스마트 트랩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SWOT 분석을 통해 본 코트디부아르 농업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코트디부아르 농업을 SWOT 분석에 근거하여 살펴볼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강점(Strengths)	취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카오, 커피 등의 유망 상품 보유</li> <li>●풍부한 일조량 및 삼림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설비 부족에 따른 낮은 생산성 및 수확률,</li> <li>●원재료 가공 기반 미흡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난망</li> <li>●일부 작물의 경우 동남아 등의 국가 대비 가격 경쟁력 불리</li> </ul>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차원의 농산물 재배 및 가공산업 육성책</li> <li>●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 및 도입 사례 증가</li> <li>●현지/외국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계 등 일부 선두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심화</li> <li>●글로벌 경기 등락에 따른 시장 가격 불안</li> <li>●COVID19 확산에 따른 수급 차질로 계약 취소 등의 변수 상존</li> </ul>

개발도상국답게 1차 산업, 특히 농산물 재배와 관련 산업이 실물 경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원재료 생산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2,3차 가공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코트디부아르 농업 최대의 화두 및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당장 중공업 등의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 산업이 제조업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 육성 정책과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차원에서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선진 기술 및 설비/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희장비 지원, 가공설비/기술 분야 교육훈련 및 노하우 전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의 투자 진출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공헌활동(CSR) 활동이나 지식/경험공유 모델(Knowledge Sharing), 1 마을 1 제품 육성 활동(One village one product) 등의 방식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8월 3일  
 - 원문출처 : KOTRA해외시장뉴스, 농작물로 승부한다, 코트디부아르 농업 현황 및 시사점 (2020.07.17.)

## VII. 글로벌

### 1. (2020년 7월 10일) 우크라이나 밀 수출쿼터와 메밀열매 수출금지 해제, 미얀마 쌀 수출쿼터 해제로, 7월 10일 기준 규제실시 국가수 11개국으로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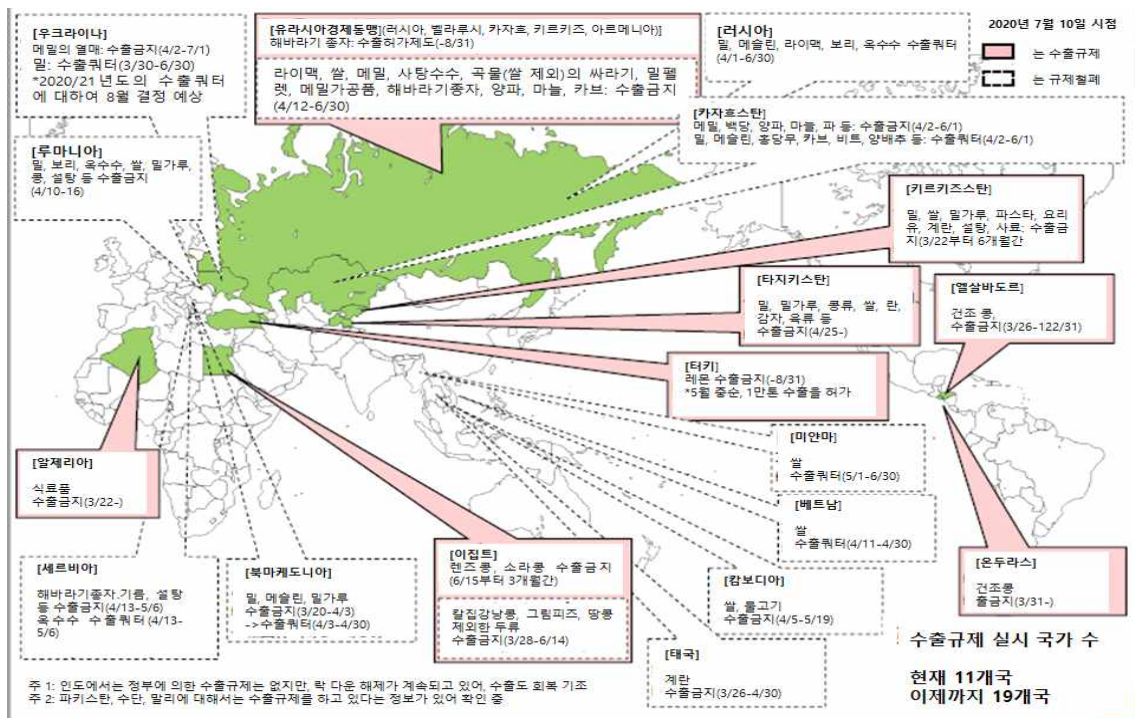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밀의 수출 쿼터를 6월 30일에, 메밀 열매 수출금지를 7월 1일에 해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밀의 2020/21년도 수출쿼터에 대해서는 8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는 쌀의 수출쿼터를 6월 30일에 해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라이맥, 쌀, 사탕수수의 수출금지가 6월 30일에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해바라기종자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수출허가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계속 ‘규제실시국가로 카운트된다. 러시아의 밀 등 수출쿼터는 6월 30일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유라시아경제동맹으로써는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규제실시국가로 카운트된다.

이집트는 수출금지하던 품목들이 6월 15일에 칼집강낭콩, 그림피즈, 땅콩 등을 제외한 두류로부터 렌즈콩, 소라콩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7월 10일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기존 13개국에서 2개국 이 줄어들어 11개국이다.

그림 수출규제 실시국가 현황



(출처) 일본 농림수산업성, 「我が国における穀物等の輸入の現状」, 2020년 7월

## 2. (2020년 7월 15일) 해외 유업체, 시장 수요변화로 일부 중단. 네덜란드 프리슬란드 캄피나 치즈공장, 美 캘리포니아 데어리 유가공장 가동 중단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가공회사들이 시장 수요변화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부 유가공장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낙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프리슬란드 캄피나는 최근 동부 RijKevoort 지역에 있는 직원 86명 규모의 치즈 공장 영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가동 중단 사유를 향후 예상되는 수요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리슬란드 캄피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등에 11,000여개의 목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유가공조합이다. 미국에 있는 유가공회사인 캘리포니아 데어리(CDI)도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가공장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CEO 역시 운영 중단 사유를 지역 유제품 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CDI는 400여개의 낙농가를 운영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 우유 공급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해외 유업체, 시장 수요변화로 일부 중단’ 「해외뉴스」 2020년 7월 15일자(<https://www.dairy.or.kr/news/internationalnews/>)

- 원문 출처: dairyreporter.com, 7월 2일, 9일자

## 3. (2020년 7월 16일) Covid-19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 심화. IHS Markit, COVID-19로 적어도 2022년까지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IHS Markit은 논평을 통해 COVID-19 대유행은 미국 경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황을 야기하고 적어도 2022년까지 세계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백신의 조기 개발 여부가 경기회복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V자 모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 경제회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IHS Markit은 바이러스의 확산-연화 국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확산 속도에 따라 W자형 회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W자 회복의 발생 가능성을 20~25%로 예상하고 있다.

복합구매관리자지수와 원자재물가지수가 5~6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을 보여 주었지만, 6월 중순 이후 COVID-19 감염자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화주들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수출입 등 경제활동이 단기간 내에 왕성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3월 14.7%에서 6월 11.1%로 떨어졌지만, 6월의 11.1%는 여전히 2월 대비 7.6% 높은 것으로 2월 이후 실업자 수는 1,200만 명 늘었다. IHS Markit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분야는 주식시장이라고 언급하였다.

IHS Markit은 2020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6.1% 감소할 것으

로 추정했으며, 세계 전체 GDP는 2019년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HS Markit은 2020년 유로존 경제가 전년 대비 약 9% 위축되고, 영국 GDP는 12%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 GDP는 전년 대비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내수를 토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벽한 회복은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IHS Markit은 일부 제조업은 V자형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COVID-19로 인한 공급망 소멸과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인해 V자형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주간해운시장포커스」 Vol. 484(2020년 7월 4주)

- 원문출처: [joc.com/trucking-logistics/truckload-freight/joc-uncharted-covid-19's-economic-drag-deepens\\_20200716.html](http://joc.com/trucking-logistics/truckload-freight/joc-uncharted-covid-19's-economic-drag-deepens_20200716.html) (로그인 필요)

#### 4. (2020년 7월 31일) 코로나19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가 증강현실 기술사용을 확대

코로나19로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식품기업 중 하나인 네슬레가 증강현실(AR) 기술<sup>29)</sup>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R 기술이 당초 생산라인의 구성 또는 재설계 유지보수 작업 장비 점검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코로나로 출장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필요성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네슬레의 연구개발팀과 공장인부 등 업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은 현장방문 없이 원격 데스크톱, AR전용 스마트 안경, 360도 카메라,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 세계 공장 또는 시설관계자들에게 원격으로 업무를 지시 또는 지원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코로나 이전에도 스위스의 연구개발팀이 태국 즉석음용 유음료 공장의 생산라인 재정비 및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원격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등 AR기술을 활용해왔다”고 하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출장을 줄여 생산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네슬레는 인공지능, 자동화 및 예측분석 등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망과 생산라인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4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http://dairyindustries.com), 7월 31일자

29) AR, Augmented Reality.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 5. (2020년 8월 3일) 각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주요 동향 등

여기에서는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주요 동향을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국에서는 청년들이 여름휴가 대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영국에서 번지는 ‘영국을 위해 수확하자(Pick for Britain)’ 캠페인에 청년층이 호응한 결과이다. 영국은 농가 대부분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유럽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하여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심각한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계절근로자 7~9만 명의 입국이 어려워지자 2020년 5월부터 ‘영국을 위해 수확하자(Pick for Britain)’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농촌에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며 도시민들에게 농촌으로 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영국 왕실의 찰스 왕세자도 2020년 5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올려 “국민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 더 절실히 느끼셨겠지만 식탁 위의 음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가을 수확기 때까지 농촌지역엔 일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 국민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캠페인이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온 이유는 휴가 대신 시골로 가는 것이 청년에게도 그다지 나쁜 선택이 아니며,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로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영국의 청년층 사이에선 차라리 시골로 가 이색적인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흐름이 생겼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막히자 노동력 부족에 주산지 농민들이 조명등을 이용해 밤에도 수확작업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양배추산지인 군마현 쓰마고이무라는 산을 개간해 만들어져 대부분 가족경영형태로 운영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2020년 3월 중단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 사태에 직면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들이 야간 수확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JA(일본 농협) 등은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된 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에서 일하던 직원을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 특히 고추 수확철을 맞은 영양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이 갑자기 막히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와 함께 계절 근로자의 출국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재입국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크다며 380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자국민의 입국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번기 일손 부족은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함안·창녕·합천군 농가 등에 따르면 양파, 마늘 수확철인 지난 2020년 5~6월 하루 임금이 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원 올라있는 상태라고 한다. 농촌 일손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끊긴 상황에서 도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센터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도시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50~60대를 앞선해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48개 기초지자체에 4,7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지만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2020년 하반기에 배정된 991명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년 7월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1(2020.8.3.)

- 원문출처:

KBS,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중단…농촌 일손부족 어찌나” (2020.7.28.)

서울신문, “외국 노동자·봉사활동 끊겨 ‘일손 가뭄’에 속타는 농촌” (2020.7.28.)

농민신문, “영국 청년층, “놀면 뭐하니”...휴양지 대신 농촌행” / “외국인 근로자 못 구한 일본 농가들, 야간작업 강행” (2020.7.29.)

동아일보, “丁총리,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코로나로 일손 부족” (2020.7.29.)

연합뉴스, “정총리 “농촌 일손 부족…외국인근로자 체류 연장” (2020.7.29.)

농민신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전환” (2020.7.31.)

## 6. (2020년 8월 5일)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다자무역 체제 어려움 가중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스트코로나 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 학계 및 제네바(WTO 본부 소재) 주재 농무관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자무역 체제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통상 부문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관련 미·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합의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밖에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

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협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아, 한국 등도 이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포스트 코로나19 농업통상 전망」 웨비나(webinar) 주요 논의 내용〉	
<p>◆ <b>미·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갈등은 2020년 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합의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li> <li>-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의 본국 회귀(reshoring)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li> <li>-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li> </ul>
<p>◆ <b>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협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공유</li> <li>- 아울러, WTO 내에서 국내조치의 투명성과 통보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통보의무 이행이 필요하다고 공감</li> </ul>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출처) 농축수산신문, “미·중 갈등,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다자무역 체제 어려움 가중”, 2020년 8월 5일자 기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2(2020.8.10.)

## 7. (2020년 8월 7일) KREI, 코로나 19이후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다른 어떤 품목보다 사료가 수입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 분석 발표

코로나 19 이후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다른 어떤 품목보다 사료가 수입 곡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곡물가격이 사료가격과는 연동이 되나, 축산물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이 수입곡물 가격 변동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료용 수입곡물이 사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품목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곡물 가격이 10% 오를 때 한국 내 전체 물가는 0.39% 상승하는데 비해, 이 가운데 사료만 보면 장기적으로 5.4%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소비자 물가의 경우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만, 사료는 곡물 가격 하락 시에도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10% 하락 시 4.8%↓)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의 모든 수입 곡물 가공품에서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료만 예외라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농경연은 이처럼 유독 수입 곡물이 사료물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사료산업에서 수입곡물이 생산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료업체들 간 경쟁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곡물 가격과 축산물 소비자 가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농경연은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의 생산비를 반영한다기보다 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양돈타임스, ‘수입 곡물 값 변동, 사료값과 직결’, 2020년 8월 7일자 기사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13>)

## 8. (2020년 8월 10일)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두 달째 상승, 곡물가격은 안정세라고 발표

세계식량가격지수가 두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제품·유지류 가격이 수요 증가에 상승한 반면, 육류 가격은 하락했다. 곡물은 옥수수 가격 등이 올랐지만 아직까진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4.2로 전월대비 1.2%(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1월 102.5에서 5월 91.0까지 떨어졌지만 6월 93.1로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군별 가격지수를 보면 곡물은 96.9로 전월대비 0.1% 상승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FAO는 평가했다.

쌀 가격은 올해 생산 증가 전망과 경제활동 침체로 하락하며 최근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밀 가격은 달러화 약세와 저조한 교역 활동, 유럽·아르헨티나·흑해 지역 생산 감소 전망 및 호주 생산 증가 전망 등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옥수수와 수수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3.7%, 5.8% 올랐다. 이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수수 대량 구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유제품은 101.8로 전월보다 3.6% 올랐다. 전지분유 가격이 아시아 지역 수입 수요

증가에 상승했고, 버터·치즈는 수출 공급이 감소하는 반면 유럽 수입 수요가 늘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다. 유지류(93.2)는 한 달 새 7.6% 급등하며 최근 5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

팜유 가격은 집중호우로 주요국 생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수요는 높아 2개월째 상승했다. 대두유는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 내 공급 감소, 유채씨유는 유럽연합(EU) 바이오디젤·식품 부문의 수요 증가로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설탕은 1.5% 오른 76.0으로 조사됐다. 설탕 수출 2위국인 태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영향이다.

육류는 한 달 새 1.8% 하락한 93.0에 머물렀다. 돼지고기·쇠고기는 주요 수출국 생산이 둔화했지만, 국제 수요가 더 낮아 가격이 내렸고, 양고기도 수요 위축에 상승폭이 낮았다. 가금육은 브라질 생산 감축 영향에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출처) 이데일리, ‘세계식량가격지수 두달째 상승, 곡물가격은 안정세’, 2020년 8월 10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25866008&mediaCodeNo=257>

9. (2020년 8월 18일) 올해 세계 우유의 날, 코로나 19로 기념행사는 오프라인으로 개최 어려워 온라인 또는 비대면 간소 행사로 축소, 온라인 행사 및 이벤트 크게 증가

올해 세계 우유의 날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참여는 행사는 크게 줄었으나, 온라인 축하 행사와 이벤트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우유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낙농플랫폼(GDP)이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우유의 날 행사 결과 리포트를 살펴보면, #EnjoyDairy를 포함한 40여개 해시태그의 노출횟수는 842백만 건으로 작년 664백만건 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궁

정적 표현 또한 64%로 작년 60%보다 4%늘었고, 부정적 표현은 2.5%로 작년 4%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팅 건수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Worldmilkday를 이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포스팅 건수는 6만 2천 건으로 작년 5만 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작년에는 68개국에서 426개의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올해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에서 온라인 축하행사 또는 간소한 비대면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18일자  
- 원문 출처: Global Dairy Platform, 8월 4일자

### 10. (2020년 8월 18일)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선정 발표

이 부분은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10대 글로벌 리스크” (2020.7.27.)의 내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농업 관련 내용만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The Economist誌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0년 7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등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규 항목이 7개를 차지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위험 강도<sup>30)</sup>를 보이는 항목이 2개를 차지하는 등 전년 대비 위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았다.

【10대 글로벌 리스크】

순위	'19.7월 기준		'20.7월 기준	
	내용	강도	내용	강도
1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	2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신규)	25
2	대규모 美 기업부채에 따른 경기 둔화 증폭 우려	12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신규)	20
3	광범위한 신흥국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12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분열	20
4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10	세계무역이 반세계주의 정책으로 회귀 (신규)	16
5	공급부족에 의한 글로벌 유가 급등	8	'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 (신규)	12
6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무력 충돌	8	예상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로 세계경제가 급반등 (신규)	10
7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	6	걸프 긴장이 마-이란 충돌로 변형	9
8	정치적 교착상태에 따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6	공급망 붕괴로 '20~'21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 발생 (신규)	9
9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5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권위주의 강화 (신규)	8
10	이탈리아의 정치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은행 위기	4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	6

30) 강도란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종합한 리스크 강도를 의미하며 최고점은 25점

EIU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되고, 연중반부터는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EIU는 이 같은 전망에 2가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 번째, 치료된 환자의 면역 생성 미흡, 2·3차 확산 발생 등으로 2020년 연중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반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여행과 비필수재 수요가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 부문의 수입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기업 부도 발생, 실업 유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2021년까지 연장되고, 디플레이션 악순환<sup>31)</sup>에서 빠져나오는데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Very High로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공포와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자본이동이 발생하여,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이미 하락하고 있으며, 기존에 대규모 달러화 표시 부채가 있으며, 향후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추가 차입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통화 가치의 하락이 심화될 경우 국가 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분열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High로 보았다. 2020년 1월의 미-중 1차 무역합의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여력 소진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에서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중국책임론 제기,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호물자 제공 등에 의해 코로나19가 양국 간 긴장 제고가 가능하고, 또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중 양국이 제3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양분되는 것은 초기에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나 장기적 영향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무역을 반세계주의 정책으로 회귀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High로 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주의적이고 반세계주의적인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및 사람의 이동에 대한 국경통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서유럽,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등 개방적인 국가들조차도 세계화에 반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EIU는 경제에 관한 국가주의의 부상으로 국제 교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반세계화 흐름의 경고 신호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 국내 공급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재고를 축적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원활한 교역 흐름을 방해하고 기업들이 공급망과 시장을 국내화하는 데 집중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두 번째, 식량, 의약품 등의 국내 생산 및 자급자족 증대와 해외조달 불안 경감을 위해 정부가

---

31)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 물가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물가하락이 추가적으로 심화되는 현상

투자 및 관-민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것이다.

20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 개발과 배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 말에나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백신배포 이후에야 여행 제한 및 봉쇄의 영구적인 종료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예상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로 세계경제가 급반등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Low, 영향력 Very high로 보았다.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코로나19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검사를 통하여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둘째, SARS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백신개발 절차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는 것, 셋째, 성공적인 백신의 개발로 여행 제한과 봉쇄가 완화되어 여행, 숙박 등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반등이 나타나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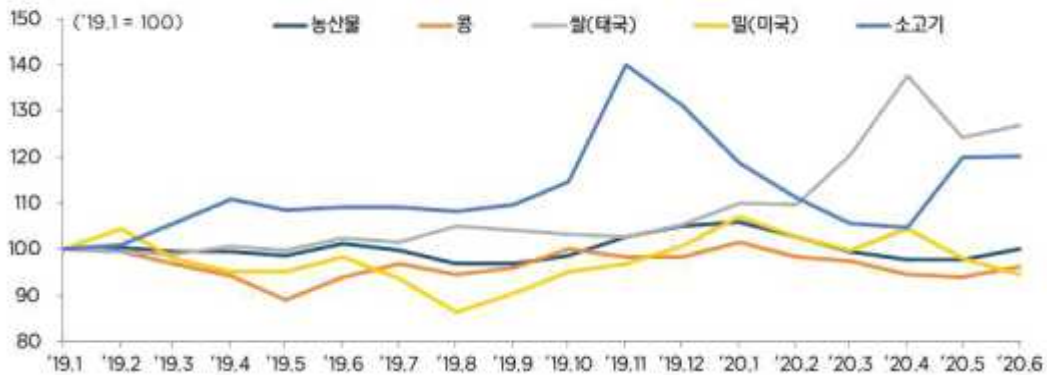
걸프 긴장이 미-이란 충돌로 변형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2020년 1월 미국의 이란 사령관 암살<sup>32)</sup>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EIU는 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유가 하락,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현 정권이 성난 민심을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는 있다고 보았다.

공급망 붕괴로 2020~2021년 예측불가능한 물가 급등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로 보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 전반에 미침에 따라 위생용품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는 등 2020년 내내 공급망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2020년 말에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국가의 수요 급증(위생용품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정책의 불일치로 인하여 관련된 공급망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2020~2021년에 걸쳐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 발생 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식품이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특징인 전자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권위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Low로 보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엄격한 봉쇄정책이 펼쳐지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권위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구권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은 여행 제한과 감염 추적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제한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브라질, 인도, 터키 등과 같이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준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경제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화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32) 2020.1.3일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

### 【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 추이 】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Low로 보았다. 사이버 공격은 가해자 식별이 어려운 반면, 낮은 비용으로 큰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 33(2020.8.18.)

- 원문 출처: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10대 글로벌 리스크” (2020.7.27.) 및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2020년 7월 27일자)

### 11. (2020년 8월 24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 크게 줄어. 가정 소비 늘고, 패스트푸드 주문 줄어...소비패턴 변화 지속시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쓰레기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 소비자들이 코로나 봉쇄기간 동안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음식물 낭비도 줄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패스트푸드 소비가 줄어 음식물과 포장재 쓰레기 배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대유행 기간 동안 91%의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검사 후 이상이 있을시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고, 가정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거의 먹고 있으며, 식재료를 찾기 위해 매일 냉장고를 뒤진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쓰레기 배출 감소로 기후변화 위기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매년 세계 식량의 1/3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썩는 음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해, 도로교통에서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24일자

- 원문 출처: thedairysite.com, 8월 19일자

## 12. (2020년 8월 28일) ASF·코로나 협공에 세계돈육 시장 불확실성 가중, 작년 이어 올해도 세계 돈가 이상 흐름, EU·美 돈가 성수기에 하락, 생산도 불안, 中, 수입 육류 검사 강화해 수출국 긴장, 발병 추이가 주요 변수돼 예측 어려워

돼지 전염병인 ASF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신종 전염병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돼지고기 시장을 연이어 강타하였다. 그 결과 최근 세계 돼지고기 시장은 높은 변동성 속에 단 한 달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만 남은 시장이 되었다.

### ■ ASF 앞친데 코로나 덮쳐

지난해 한돈시세 약세가 본격화되며 연평균 가격이 13년 이후 처음으로 4천 원대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지난해는 4월 돼지 값이 5~6월보다 높았고, 9월에 연중 최고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었다. ASF가 주원인이었다. 18년 중국에서 발생한 ASF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입 감소가 예견되면서 4월 가수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국내서 ASF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동제한으로 공급물량이 줄어 대표적인 저돈가 시기인 추석 이후 돼지 값이 오히려 급등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그리고 올해도 ASF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하나 더 얹혀졌다. 예상치 못했던 가정 내 한돈 수요를 이끌어낸데 이어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5월 한돈 가격은 5천 원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코로나는 6월보다 5월 돼지 값이 더 높은 또 하나의 예외적 사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안정화 되는 듯 보이던 코로나가 최근 재확산되고 있다. 경제 전반에도 악재가 되면서 한돈시장도 코로나 재확산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한돈시장에 미쳤던 여파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 ■ 세계 양돈시장도 혼란

ASF와 코로나가 겹친 양돈시장의 혼란은 세계, 특히 주요 수출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돼지 값의 등락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두 개의 전염병이 주된 이유라는 점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먼저 EU(유럽연합)의 돼지 값은 지난해 3월부터 대 중국 수출 증가 효과로 치솟으면서 올 초 전년 동월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던 돈가가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저조로 하락, 계절적 흐름을 역행하며 내림세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5월 평균 돈가(162유로/100kg)가 3월(190.96유로)에 비해 15% 가량 떨어졌

고, 지난해 대비로도 6% 낮았다. 여기다 6월 중순 코로나로 인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최대 돼지고기 생산시설 폐쇄까지 겹치면서 7월 152유로까지 떨어졌다.

미국은 중국의 ASF 특수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코로나를 만나 고전 중이다. 그동안 무역분쟁으로 EU에 비해 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지난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듯했다. 4월말 현재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양돈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혼란 그 자체이다. 5월까지 월평균 돼지고기 지육 도매시세(100kg)를 보면, 165달러→147달러→161달러→134달러→226달러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돈가는 6월 152달러로 급락한 이후 7월 148달러로 추가 하락하며 약세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로 인한 돼지고기 공급망의 혼란과 외식 등 소비 시장의 침체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특히 최근의 저돈가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미국의 올해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은 ASF가 올해도 양돈시장에 가장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돼지고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수입량이 4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79.5% 가량 늘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코로나 유입 방지를 이유로 수입 육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 수입 중단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EU 등 수출국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자칫 코로나 사태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돼지고기의 세계 교역이 다른 양상으로 이끌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중국은 돼지고기가 부족하고, 따라서 중국의 수입량 증가와 이에 따른 수출국들의 대 중국 수출 증가 전망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이다.

라보뱅크는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ASF가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가장 큰 변수이나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망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ASF와 코로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글로벌 돈육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가공공장 폐쇄와 관련된 생산 손실 및 운영 둔화 △미중간 지속적 긴장 관계 △독일 등 유럽 주요 생산국의 ASF 발생 위험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향후 추가 확산 등 발병 추이를 예단하기 힘든 ASF와 코로나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양돈시장에 주요 변수가 된 만큼 당분간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양돈타임즈, ‘ASF·코로나 협공에 세계돈육 시장 불확실성 가중’, 2020년 8월 28일자(<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3>)

### 13. (2020년 8월 31일) 라보뱅크, 뉴노멀 시대 식품업계 4대 혁신 트렌드 발표. 산지 직송 E-Grocery 시장 확대, 식품손실 절감 기술, ICT 도입 확대 등

코로나19로 식품업계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라보뱅크가 식품 및 농업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인 푸드바이트(FoodBytes!)를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는 식품산업 혁신 트렌드 4가지를 발표하였다.

첫째, 산지직송 E-Grocery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식료품을 유통하는 E-Grocer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투명한 온라인 식품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고, 이 분야에 새롭게 뛰어드는 스타트업도 늘고 있다.

둘째, 식품손실 절감기술. 현재 식품생산량의 30%에 달하는 식품손실이 코로나 장기화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발 식품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이력 추적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셋째, ICT 정밀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과 농업용 로봇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검증이 부족하고 도입 비용도 높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끝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코로나 확산 이후, 동물성 식품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슬레 등 많은 기업에서 통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육류 등 신제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라보뱅크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변화에 산업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우리도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조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IDF 한국(낙농진흥회),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8월 31일자

- 원문 출처: foodnavigator.com, 8월 3일자